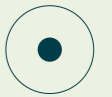


Imagination Platform



Relaxation ▲

Dream



Passion



Creativity

Ardentness

## 변화를 지나 혁신 가까이 다가오는

다양한 인재를 '포용적 사회인'으로 키우는  
한성대학교 전공트랙제!  
변화를 지나 혁신과 더욱 가까워지는  
따뜻한 상상력을 당신께 전합니다

Challenge



상상력 인큐베이터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02876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16  
116, Samseongyo-ro 16 gil,  
Seongbuk-gu, Seoul, 02876, Korea  
www.hansung.ac.kr

한성대학교는 인재 한 명 한 명을 향해  
내일을 아름답게 물들일 상상력의  
꽃대를 올립니다

**그 날에, 붉은 꽃에**



다양하고 색깔도 크기도 서로 다른  
 저마다의 아름다운 상상력을 시작합니다



# CONTENTS

Hansung University Magazine  
2018 Spring Vol. 102

06	Special Issue	전공트랙제 한눈에 보기
08	상상트랙	한성대 전공트랙제 도입 일 년 반을 돌아보다 이상한 총장과의 만남
12	상상마스터	유쾌한 상상력에 번뜩이는 재치, 독보적인 예술세계를 선보이다 예술대회화와 유승호 작가 인터뷰
16	상상크리에이터 1	뷰티마용 분야의 실용적 학문 가치를 더하다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 권오혁 교수 인터뷰
20	상상크리에이터 2	건강한 청년사업가의 성공조건을 제시하다 경제학과 '건강한 형제들' 박준수 대표 인터뷰
24	상상피디아 1	읽고 보고 듣고 느끼는 상상력
26	상상은 Unlimited	· 소중한 맘의 가치를 아는 사람 ·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 공학계 여성 롤모델의 꿈, 첫발을 내딛다 · '일단 해 보자!' 경험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34	상상피디아 2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그것이 알고 싶다
36	상상은 Share	· 우리 안의 소통이 지역과 세상의 소통으로 자라나길 · 세상을 은은히 비추는 둥그런 빛 하나 · 마음으로 느끼는 봉사의 참 의미
42	With 한성 1	30년 요리 장인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상상력 우송대학교 김용진 교수 인터뷰
44	With 한성 2	소통하고 공감하는 우리 시대 작가를 꿈꾸다 회화과 광수연 작가 인터뷰
46	한성대학교 뉴스	
54	상상빌리지 기부금 안내	
56	모집요강	



# WHAT

## 한성대학교 전공트랙제란?

국내 최초

# 1

트랙 제도  
전교생 대상  
전면 도입



트랙 수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9개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11개  
디자인대학 10개  
IT공과대학 15개



# 45

진로와 적성에 맞춰  
전공 트랙 2개 이상  
선택 가능

# 2

트랙 선택

트랙 조합

# 340

·주간 190개  
·야간 150개



단계별 프로그램

# 3

3단계 프로그램  
·1단계 신입생 트랙탐방  
·2단계 신입생 예비 진로학교  
·3단계 트랙탐색

트랙제 활용

# 20

20% 비율로  
전공과 다른  
트랙 선택



투자·지원

# 3,800,000,000



특성화 융합교육  
사업 방안으로  
4개 사업단에  
38억 지원

트랙제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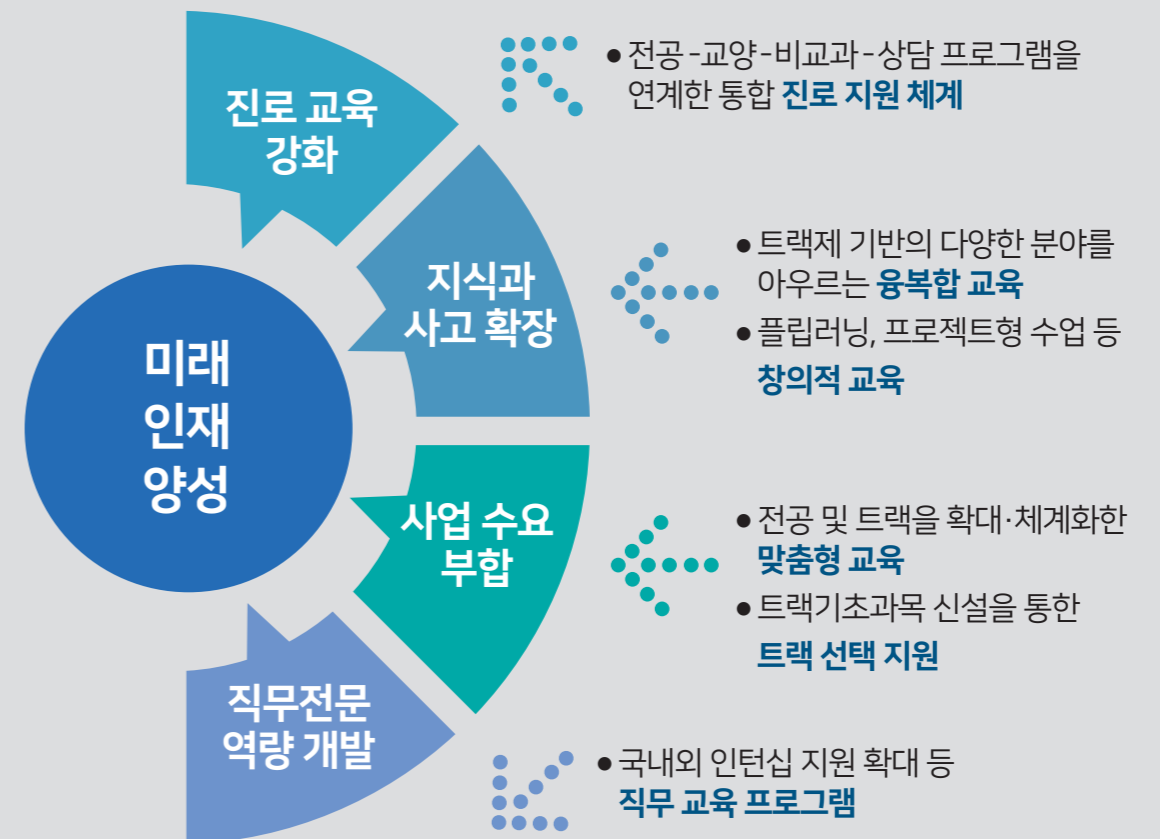
# 4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한민국  
융복합인재



# WHY

## 왜 한성대학교 전공트랙제를 선택해야 할까?





## 상상트랙

#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꿈꾸다

한성대 전공트랙제 도입 일 년 반을 돌아보다

한성대학교가 전공트랙제를 시행한 지 일 년 반의 시간이 지났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학생들은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으며, 2개 이상의 트랙을 선택함으로써 본인의 선택에 의한 융합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좋은 취지의 제도이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한 만큼 현재를 점검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볼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이상한 총장이 다섯 명의 학생 대표를 만나 전공트랙제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학생들이 체감하는 변화는 무엇인지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 교육제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다

학생들이 오고 싶은 대학, 머물고 싶은 대학, 사회가 필요로 하는 대학. 이상한 총장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최고 대학의 비전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학교는 학생, 학부모, 사회가 만족하는 교육환경, 교육시설, 교육내용 등 최상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우리 학교는 그 기반이 되는 교육과정으로 트랙제를 선택했다.

“2016년 2월 1일 총장으로 취임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미션이 학과구조를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융합’이 화두로 부상하면서 학생들 스스로 선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기존 주입식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크게 제기되었습니다. 이 같은 변화의 시기에 과연 우리 학교는 교육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상한 총장의 고민은 ‘학생들이 성인이 되기도 전인 18~19세에 전공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급변하는 우리 사회가 강조하는 융합교육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학교의 일방적인 교육이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쓰임새가 있는 영역인지,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교수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이었다. 결국 궁

극적으로 학교가 학생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심사숙고한 끝에 전공트랙제가 최선의 제도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다. “우리 학교 트랙제의 기본 설정 방향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교수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변화 등을 통한 경쟁력 확보로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상한 총장은 학생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고, 학생들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융합능력을 키우는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교수들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인할 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 트랙제,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다

한성대가 운영하는 트랙제의 핵심은 기존에 있던 20개 학과를 없앤 대신 학생들이 선호하고, 앞으로 사회가 선호하게 될 학과를 프로그램 단위인 45개 트랙으로 전환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양한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데, 1학년 때 기초 교양과정을 이수하고 2학년 때 2개 이상의 트랙을 선택함에 따라 본인의 선택에 의한 융합교육을 받게 된다. 모든 트랙의 정원이 없어서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전공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도 트랙제의 강점이라 할 수 있다.

“4년 동안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고르고 변경할 수 있는 만큼 학생 스스로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45개 트랙 중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되니 교수들은 본인이 속한 트랙을 살리기 위해 무한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겠지요. 따라서 소속 트랙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게 될 것이고, 이는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의 수준을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기술이나 자격증, 과목을 학과나 트랙에서 만들기는 어렵다. 이에 한성대는 전공교육의 강화와 융합과정 활성화를 위해 트랙제와 연계한 Micro College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SAP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코업 전공 과정, 지식재산&벤처창업 프로그램, CRM-디지털마

케팅 프로그램 등 3가지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학생들은 4~15주의 집중교육을 통해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 이밖에도 우리 학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18 지역 VR/AR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만큼 향후 이 분야를 특화전략으로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누군가 가지 않은 길을 열어간다는 것은 그리 녹록지 않은 일.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트랙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여러 가지 변수와 직면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특정 트랙에 학생들의 쏠림 현상이 생기고 그로 인한 반발, 또한 학생들이 융합선택을 제대로 잘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 등 트랙제 도입으로 인한 문제점을 현명하게 해결해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이상한 총장은 다른 대학의 사례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고려하지 못했던 사안이나 소소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연구해서 보완해 나갈 것이며, 이는 학교만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라며 교수, 직원, 학생, 동문 모두 힘을 합쳐나가야 하고 사회의 도움도 많이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학생들에게 최상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가 ‘좌판’을 깔아놓겠습니다. 이처럼 주어진 좌판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하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아가고 선택하는 한성인이 되길 기대합니다.”

# 트랙제 도입 1세대가 말한다



**김정훈** 모바일소프트웨어트랙, 웹공학트랙 → 시스템경영공학트랙, 컨설팅트랙

“18, 19세는 청소년들이 전공을 선택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하기에는 이른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컴퓨터 공학부 소속의 트랙을 선택했었습니다. 정확히 이 학과의 전망과 진로가 어떻게 되고, 보다 원활한 취업을 위해 무슨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많이 궁금했는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트랙상담을 통해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제게 적합한 트랙은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처음 선택했던 모바일소프트웨어트랙, 웹공학트랙에서 시스템경영공학트랙, 컨설팅트랙으로 전과할 결심을 했고, 스스로 선택한 트랙인만큼 전공 공부에 대한 열정으로 학업에 더욱 재미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홍주** 패션마케팅트랙, 패션디자인트랙 → 뷰티매니지먼트트랙

“저는 현재 패션마케팅트랙을 진학 중이며, 뷰티매니지먼트트랙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뷰티매니지먼트 트랙이 신설되어 졸업 후 취업 방향 등이 모호해 선택이 다소 어려웠는데, 1학년 때 원하는 트랙을 자유롭게 접할 수 있었던 덕분에 현재 전과나 복수전공 등의 과정이 아주 간단해졌습니다. 처음 입학할 때만 해도 트랙제가 생소해 두려운 감이 없잖아 있었는데 제가 원하는 학문을 모두 접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앞으로 트랙제 관련 학사과정을 조금 더 다듬어 한성대의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는 대표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수현** 한국어교육트랙, 국제무역트랙

“1학기 때 한국어교육트랙을 선택하고, 2트랙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때 진로상담센터에 찾아가서 결정을 내리는 데에 도움이 되었고, 국제무역트랙을 선택해 두 분야에서 독립적인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각오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학문에 관심이 많아 전공을 정하기 어려웠던 저로서는 1년 동안 트랙의 기초과목을 공부하며 진로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후 트랙을 결정할 수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학생들은 이 트랙에서 2~3학년 때 무엇을 배우는지, 이 트랙이 적성과 흥미에 맞는지 트랙상담을 통해서 자세히 알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1~2학년 때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트랙 상담의 형태를 파악해서 그에 맞게 보완하고, 3~4학년 때에는 트랙 자체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조금 더 보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도희** 상상력인재학부 회장 / 모바일소프트웨어트랙, 웹공학트랙

“저는 2017년 신설된 상상력인재학부로 입학을 했는데, 우리 학부는 1트랙, 2트랙 수업 모두를 유연하게 들을 수 있어 다양한 학문에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이 좋습니다. 정시 OT 때 진행했던 트랙부설 설명회와 학기 중에 진행했던 교수님 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은 단순히 한 학년의 커리큘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트랙을 선택했을 때의 진로와 대학 교육 과정 4년 전체의 큰 그림을 보여주었습니다. 덕분에 학생들이 트랙 선택을 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을 받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총장님과 더불어 학교 임직원들이 학생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의 고민에 대해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진기 총학생회장** 기계시스템 4학년

“트랙제 도입 후 재학생으로서의 소감을 말하자면, ‘선택의 기회 부여’라는 트랙제의 목적이 잘 이루어져 그 부분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아 보입니다. 트랙 전공 수업 자체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 학생들의 트랙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되는 현재의 트랙 관련 프로그램들이 전공 자체의 설명회 느낌이라,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트랙 선택을 돕기엔 한계가 있는 것 같아 조금 아쉽습니다. 트랙제로 인해 소속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만큼 학교 축제 이외에도 지난해 삼색의 봄 행사처럼 학생들이 트랙을 넘나들며 교류할 수 있는 행사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상상마스터

# 유쾌한 상상력에 번뜩이는 재치, 독보적인 예술세계를 선보이다

예술대 회화과 92학번 유승호 작가

그림은 즐거운 작업이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는 이도, 보는 이도. 작가로 데뷔한 지 20년, 국내외적으로 인지도 높은 중견작가의 반열에 올랐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반짝거리는 창조적 에너지가 넘친다. 그린다는 행위는 독창적인 아이디어의 착안에서 작품으로 완성하기까지 몸과 마음이 힘든 작업. 그럼에도 좋아하고 재미있는 일이기엔 기꺼이 '즐거운 감옥'에 스스로를 가두려 한다. '작가 유승호'라는 이름을 걸고.

### '글자산수화' 라는 독보적인 영역 구축

가파른 폭포, 깎아지른 절벽 위에 기품 있게 서 있는 소나무. 수려한 자연경관을 화폭에 그대로 옮겨 담은 풍경화는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낸다. 이토록 멋진 그림을 담아내는 작가는 누구일까 궁금하던 차에 찾아보니 유승호 작가의 2017년 작품, <야~호>다. 마치 선계에 있는 듯 몽환적이면서도 지극히 동양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그림의 제목이 <야~호>라니. 멀리서 볼 때는 한 폭의 산수화였는데, 가까이서 들여다보니 깨알 같은 글씨들이 뽀뽀이 쌓여 형상을 이루고 있다. 글씨로 그림을 그려내는 작업, 유승호 작가의 독창적인 기법이다.

화단에서 '유승호' 하면 글자들의 반복으로 풍경화를 그려내는 '문자산수' 작가로 정평이 나 있다. 그의 산수화는 '슈슈슈' 등 의성어의 나열로 이루어져 있는데, 깨알처럼 매달려 있는 글자들을 보노라면 작가 특유의 섬세함과 치밀함이 돋보인다. 글자들을 뽀뽀하게 채워 산수화의 형상을 이루었으니 그의 작업은 상당히 노동집약적이고 품이 많이 드는 '고역'이 아닐 수 없는데, 글씨로 그림을 그려내는 아이디어는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대학 3학년 때 과제전을 준비하면서 전날까지도 뭘 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매직펜으로 글씨를 긁적거리다, '글씨로 이미지를 그리는 것이 과연 미술이 될 수 있을까' 하는 호기심으로 한 번 해보게 된 거죠." 유승호 작가의 '고백'처럼 호기심으로 해 본 시도였고, 누구도 하지 않았던 영역인 만큼 당시 교수님들이나 동기들의 평가가 심상찮았을 것 같다. 한데 '둔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남들의 반응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다고 한다. 아무래도 그 연연해 하지 않음이 유승호 작가가 지금까지 독보적인 자기 영역을 구축하는 예술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플러스요인이었는지도 모른다. 만일 그가 타인의 반응을 예민하게 의식했다면 거기에 함몰돼 자유로운 상상력을 표현하는 데 있어 한계에 부딪혔을 지도 모를 테니.



### 반짝이는 상상력을 위해서 때로는 머리를 비워야

비평가들은 유승호 작가의 작품들에서 문자와 이미지의 관계에 주목한다. 지난해 유승호 작가의 개인전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개최할 당시, 서울시립미술관 박순영 학예연구사는 그의 작업을 ‘문자나 이미지처럼 견고하고 구체적인 형식을 다루지만 서로 상반되는 두 성질의 것이 서로를 넘나들면서 서로로 변화하고, 화면의 구성은 액체처럼 유동적이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뇌출혈’이 ‘natural’이 되고, 다시 ‘natural’은 산이 되고 새가 되어 날아간다. 또 ‘슈’, ‘주루룩’과 같은 의성어, 의태어들이 모여 폭포와 깎아지른 절벽을 이루는 풍경화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산수화라고 하면 고상함, 우아함, 무게감이 느껴지는데, 유승호 작가의 글자산수화에는 반짝이는 상상력과 아이디어로 가득하다.

그의 작품들을 훑어보면 언어유희나 장난스러운 낙서를 즐겨 사용하는 것이 보인다. 멀리서 볼 때는 근엄하게 보이던 산수화였는데, 알고 보니 익살맞고 우스꽝스러운 의성어의 나열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반전이 있어 그의 작품들은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이처럼 유쾌하고 기발한 아이디어의 원천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예술가는 창작의 고통이라는 짐을 지고 산다고 하는데, 유승호 작가는 번뜩이는 상상력을 위해 얼마나 큰 고통을 감수할까 했더니 거창한 수식어 대신 ‘무의식’이

라는 단순명료한 답이 돌아온다. 무의식의 상태가 되려면 생각을 비워야 하고 그래서 자주 ‘멍 때리기’를 한다고. 아무래도 손으로 끝없이 반복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비워지는지도 모를 일이다.

“가끔은 머리를 완전히 비울 필요가 있어요.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며칠이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멍한 상태로 저를 놓아둘 때도 있는데 이렇게 멍 때리기를 해서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야 좋은 생각, 재미있는 상상력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 그림, 스스로가 즐겁고 재미있어야 가능한 작업

유승호 작가가 오늘날 글자산수화라는 독창적인 영역을 개척하는 데는 한성대 재학 시절의 영향이 컸다. 회화과 92학번인 그는 자신의 미대생 시절을 ‘르네상스’라 부른다. 그림을 그리고, 예술적 소양을 기르기 위한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있었던 덕분이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작가주의 경향이 왕성하던 시기여서 학생들이 작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열성적으로 가르치셨고, 커리큘럼도 좋아서 혜택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로운 가운데 기본적인 토대를 훈련 받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이지요.”

유승호 작가는 대학 시절 동안 드로잉 습작을 많이 한 것과

뇌를 말랑말랑하게 하는 법을 익힌 것이 작가 활동을 하는데 큰 지침목이 되어주었다고 말한다. 드로잉을 하면서 교수님들께 혼나기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가운데 테크닉이나 화면구성에 대한 힘을 기를 수가 있었다고 한다. 왕성하게 활동하시던 교수님들의 ‘센 기질’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의 ‘열정’이 어우러져 마치 ‘전쟁터’와 같은 치열하고 뜨거운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유승호 작가는 세대가 변하면서 이런 열정들이 점차 희미해지는 상황이 조금은 아쉽다고 말한다. “시대가 지날수록 너무 현실성이 강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현실성이 너무 커지면 미술 작업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신념이 있다면 어렵더라도 밀고 나가고, 흐린 눈이 아닌 푹기 있는 총명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이 추구한 바대로 소신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채우는 일에만 급급해 정작 비울 때를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인생을 먼저 산 선배로서 유승호 작가가 후배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당부다. 아울러 작가로서 그림을 그리는 일에 자신을 걸었다면 자기만의 자신감으로, 남들과는 다른 자기만의 방식을 따르는 용기도 필요하다는 점을 덧붙여 말한다.

유승호 작가는 그림은 그리는 사람도, 감상하는 이도 부담 없이 즐기고 재미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하나의 이미지로 고착화되는 것을 경계한다. 예술가가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 ‘재미가 없기’ 때문이

다. 그래서 그는 공부를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다소 엉뚱한 주문을 한다. 지식과 이론을 습득하고 이를 작업과 연결시키는 일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아는 것을 그리기, 어렵게 말 안 하기, 어렵게 안 쓰기, 딱 거기까지면 충분하다’는 생각, 그래서 참 ‘유승호다운’ 작품이 탄생하는 지도 모르겠다.

### 유승호 작가가 말하는 상상력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게으른 상태로 가만히 있어 보는 것도 때로는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다 문득 떠오른 것에 파고 들어가 작업에 몰입하는 것이 그의 스타일. 유승호 작가는 대학 시절부터 연습해 온 ‘뇌 말랑말랑하게 하기’가 작가 활동을 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되어주었다고 한다. 이는 의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데, 이른바 멍한 상태에서 뇌의 전전두엽, 후방대상피질이 활성화돼 기억력이 좋아지고 창의성이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것. 지금 이 순간 아이디어 고갈로 머리를 싸매고 있는 한성인이라면 한번쯤 시도해볼 것을 권한다.”



### 상상크리에이터 1

## 뷰티미용 분야의 실용적 학문 가치를 더하다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권오혁 교수

향후 우리 사회는 인공지능이 대부분의 일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숫자를 다루고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일은 분명 AI가 더 잘할 수 있을 터. 하지만, 인간의 '창의성'은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인 만큼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만들어내는 뷰티미용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기술적 숙련도가 조화를 이뤄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권오혁 교수가 학생들의 '뷰티 멘토'를 자처하고 나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통해 아름다움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오혁 교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태고부터 자연스럽게 생겨난 본능이지만, 이를 학문으로 이야기하기가 터부시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뷰티미용 산업 시장이 상대적으로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한다.

“1895년 완주 군수였던 안경호가 고종의 머리를 담당했고, 1933년 일본 동경에서 미용을 공부하고 돌아온 배우 출신의 오혁주 여사가 김활란 총장의 머리를 단발커트로 잘라 신여성의 표상이 되는 등 우리나라 미용사의 시초는 고위급 관리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한국전쟁 후 못 먹고 못 사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생계 수단으로 미싱, 미용이 주를 이루면서 상대적으로 이 분야가 평가절하되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는 유럽을 비롯해 가까운 일본에서는 미용을 최고의 전문직종으로 여기는 반면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것이 늘 아쉽고 안타까웠다고 한다. 이제 시대가 변하고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젊은 세대는 선배들이 짊어져야 했던 '명예'로부터 자유로웠으면 하는 바람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며 뷰티미용의 멘토 역할을 기꺼이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 뷰티미용계의 장인이 강단에 선 이유

오늘날 대학들은 미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보다 현실에 가까운 실용학문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우리 학교는 지난 2002년 국내 최초로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석사과정을 신설, 예술학석사를 배출해왔으며 2016년에 뷰티디자인학과를 신설하고, 지난해 입시에서는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 학과로 일반전형과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모집을 하고 있다. 권오혁 교수는 최근 들어 헤어, 메이크업, 네일 등 뷰티미용학과가 인기학과로 급부상하고 있는 현상을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오고야 말 당연한 시대적 수순'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미 200여 개가 넘는 전문대학에서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를 운영해왔고, 점차 4년제 대학으로 그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죠. 이처럼 실용학과에 대한 가치가 부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지고 보면 미용이나 의학이나 사람을 케어한다는 측면에서 실용학문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론 생명을 다루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지만, 미용을

### 젊은 세대에게 새 꿈을 만들어주는 교수

30년 가까운 오랜 세월을 미용 분야에 집중하며 서른 개가 넘는 헤어살롱을 운영해 온 권오혁 교수는 현장에서는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뛰어난 테크니션이자 강단에서 후배들을 양성해 온 스승이기도 하다. 강산이 세 번 바뀌는 세월 동안 부단히 단련해 온 베테랑이지만, 그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틈틈이 미용현장에서 직접 고객을 상대하며 기술적 감각을 익히는 일에 소홀함이 없다. 트렌드가 생명인 뷰티미용 분야의 특성상 ‘갑’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살아 움직이는 직업군 중 하나가 미용입니다. 뷰티는 살아 있는 생명체와도 같은 성향이 있거든요. 따라서 시시각각 변하는 트렌드를 누구보다 제가 가장 잘 알고 있어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수라면,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려면 더더욱 현장을 잘 알고 있어야 하죠.”

뷰티미용은 실용학문인 만큼 이론적, 실용적 공부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권오혁 교수의 지론.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가진 선배들이 후배에게 노하우를 전수하고 나눠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는 현장과 대학을 조화롭게 이어주는 가교 역할이 자신의 임무라 이야기한다.

“일반적으로 헤어디자이너가 되기까지는 10년 넘는 경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밑바닥부터 시작해 올라온 사람들은 대학 공부가 왜 필요하냐는 인식을 가지고 있을 테죠. 반면 학교에서 볼 때 현장 사람들은 기술만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서로 간에 불가피하게 갭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같은 인식의 문제가 미용시장의 발전을 더디게 만드는 저해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권오혁 교수가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고객의 헤어,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고객의 식이요법까지도 잘 알고 있는 진정한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뷰티미용 분야로의 진출을 꿈꾸는 학생들이 단지 돈을 벌고자 하는 ‘장사꾼’으로 내비치기보다는 이 계통에서만만큼은 전문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위와 기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확신하는 만큼 그를 젊은 세대들에게 새 꿈을 만들어주는 ‘드림 크리에이터’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다.

### K-뷰티,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일에 초석이 되길

대학 4년을 꼬박 학문에 정진하더라도 사회에 나가면 ‘대학에서 뭐 배웠어?’라는 지적을 받곤 한다. 특히 미용과 같이

경험과 기술이 중요한 분야일수록 더더욱 그러할 터다. 권오혁 교수는 우리 학생들만이라도 이 같은 꼬리표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매년 국제미용경진대회에 학생들을 참가시키는 등의 훈련을 통해 학교와 현장의 괴리감을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고자 한다.

“향후 우리나라가 월등히 잘 할 수 있는 분야는 K-팝, K-뷰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자질도 풍부하고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한성대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 학과에서 공부한 학생들이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치고, 나아가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리더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선배로서 제가 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창조적인 작업이 가진 힘, 그 일선에서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가지는 책임감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권오혁 교수는 장애인시설, 독거어르신들을 찾아 다니며 15년째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2017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사회봉사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 그는 ‘해왔던 일을 했던 것뿐’이라며 겸손해한다.

권오혁 교수가 가진 ‘공익적인 꿈’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중

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어쩌면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도 그러했을 테고, 그러기에 인생은 끊임없이 자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 권오혁 교수가 생각하는 뷰티미용 아티스트가 가져야 할 상상력은 ‘CUT’이다.

“cut의 사전적 의미는 ‘자르다’이지만, 미용에서의 cut은 자르는 것이 아니라 ‘남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헤어커트란 그 사람의 직업, 나이, 얼굴형, 두상, 모질, 전반적인 컨디션에 가장 어울리게 그리고 아름답게 남기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사전적 의미에서 벗어나 접근법부터 달리하는 것, 그것이 뷰티미용에서 필요로 하는 상상력의 원천이 아닐까요?”





## 상상크리에이터 2

# 건강한 청년사업가의 성공조건을 제시하다

경제학과 06학번 '건강한 형제들' 박준수 대표

오늘날 대학생들의 워너비 가운데 하나가 청년사업가이다. 우리 학교 선배들 가운데는 직장생활에 얽매이기보다 자신만의 빛나는 아이디어를 무기로 내실 있는 회사를 운영하며 착실히 성공 가도를 달려가는 이들이 있다. 그중 하나가 홈트레이닝 기구를 만드는 '건강한 형제들'의 박준수 대표이다.

### 기회는 준비된 자의 몫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흐름을 타는 순간이 있다. 소위 '탄력이 붙는 시기'가 누구에게나 오지만, 이 기회를 자신만의 플로우로 만드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성공 여부가 갈린다. 그런 측면에서 박준수 대표는 남다른 '축'을 가진, 천생사업가 체질이라 해도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홈트레이닝 피트니스' 콘셉트를 도입해 가정용 헬스기구를 판매하는 '건강한 형제들'의 박준수 대표는 한성대 학생 창업기업 매출 1위의 신화를 이룬 성공한 사업가다.

“학교 다닐 때부터 막연히 기업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려면 먼저 기업가들을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만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수입 자동차 딜러를 생각했고, 제대 후 바로 영업사원 일을 시작했습니다.”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공군 학사장교로 3년 4개월을 보내고 2년 반 동안 영업일을 경험하면서 그는 비즈니스에 대한 안목을 키울 수 있었고, 이 시기에 영업과 병행해 박스 도소매 회사를 창업하면서 본격적인 사업가의 길로 접어들었다.

“박스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중에 운동에 관한 블로그를 운영하던 친구의 권유로 운동기구를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건강

한 형제들'을 설립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창업 초창기에는 중국산 제품을 수입해 온라인에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첫 달에 매출 5천만 원, 순수의 4백만 원을 벌어서 그 돈을 토대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어야 하고 남모르는 고민도 많았을 터. 박준수 대표는 운이 좋게도 큰 굴곡 없이 지금껏 회사를 운영하고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겸손해하지만, 사업을 시작하기 전 꼼꼼하고 철저한 사전준비와 경험치들이 현재의 그를 성장하게 해 준 밑거름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사업가에게 필요한 '운칠기삼'의 기회를 제대로 포착할 줄 아는 그는 올해를 '건강한 형제'의 혁신기로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 청년창업은 자기 안의 확신으로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창업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있을 것이다. 직장생활에 얽매이기보다 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멋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누구나 한번쯤 가져봄 직한데, 청년창업의 현실 또한 그리 만만하지는 않다.

박준수 대표의 성공담을 살펴보면, 본인은 친구의 권유로 운동기구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지만, 그 속에는 트렌드를 정확히 짚어내는 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건강한 형제들'이 주력 상품으로 내 건 건형스쿼트가 현재 국내 스쿼트머신 판매량 1위를 구가하고 있는데, 이는 100세 시대를 맞아 크게 부각되고 있는 건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한 결과로 분석할 수 있다. 홈트레이닝은 따로 시간을 내 헬스장에 가지 않



아도 돼 시간 활용도가 높고, 운동할 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런 메리트가 부각되면서 '건형스쿼트'는 구매 후기가 3,000여개나 달릴 정도로 인기 상품이 되었다.

“지난 2016년 11월 출시한 건형스쿼트는 집안 인테리어와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100% 국내 제작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스쿼트 머신을 가정용으로 개량해서 판매한 것이 우리가 처음이고, 스쿼트 머신이라는 단어를 생산해낸 것도 우리 회사가 처음이라 이 분야에서 ‘최초’라는 자부심이 있죠.”

홈쇼핑에서 운동기구를 구매해 며칠 사용하다 결국 옷걸이로 전락하는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박준수 대표는 10년, 20년 쓸 수 있는 운동기구를 만들자는 점에 집중했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디자인과 집 인테리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연구개발한 것이 ‘건강한 형제’만의 성공 포인트가 되어 준 것이다. 창업 이듬해 300%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거두며 승승장구하고 있지만, 박준수 대표는 ‘매출은 비공개라 밝힐 수 없어 미안하다’ 말하며 환한 웃음을 지어 보인다.

‘건강한 형제들’이 단기간에 놀라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크게 두 가지. 단순히 운동기구 판매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간소하지만 최적화된 기능을 장착했고, 가정용 기구인 만큼 실내 인테리어로 활용할 수 있게 디자인을 고급화했다는 점이다. 최근 홈트레이닝이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박준수 대표는 인테리어와 운동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사로잡는 사업 승부수로 고객 만족과 매출확장을 이뤄낼 수 있었다.

###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건실한 회사로 성장하길

박준수 대표는 학교를 오래 다닌 장(長)학생이기도 하다. 3학년 1학기에 경제학과에 편입, 한 학기를 보내고 공군 학사장교로 3년 4개월, 전역 후 직장인으로 2년 반 남짓을 보내고 2016년에서야 졸업을 했으니 그럴 법도 하다.

“제 첫 창업회사가 박스 유통회사였는데, 당시 한성대 창업지원센터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부기관에서 하는 스마트벤처창업학교가 있다는 안내를 받았고, 실제로 지원해서 정부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소중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학생과 사회인의 경계에 있는 동안 대학의 기능을 객관적으

로 바라볼 수 있었다는 그는 취업을 위해 학교를 다니는 지금의 현실이 어렵기는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회분위기인 만큼 학교에 있는 동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진정 즐기며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건강한 형제들’이 거둔 보기 좋은 수치와 여러 가지 성과들이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성공이라는 단어를 붙이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난관들이 도사리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 지금에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한 형제들’은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설립된 회사다. 그래서 운동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보기도 좋아 자꾸 손이 가는 운동기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이 회사의 존재이유기도 하다. 박준수 대표가 이루고 싶은 꿈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회사로 느낄 수 있도록 행복한 사업체를 꾸려나가는 것. 그리고 100% 국산제품을 생산하는 만큼 세계 시장에 진출해 ‘메이드 인 코리아 홈트레이닝’의 힘을 증명해 보이고 싶은 소망이 있다.

올해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실내 자전거와 거꾸리 등 새로

운 가정용 기구를 출시하고, 스쿼트머신의 프리미엄 라인도 준비 중이라고 하니 세계무대에서 ‘건형’이라는 반가운 이름을 만나게 될 날이 앞당겨지길 기대한다.

### 박준수 대표가 청년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창업을 꿈꾸는 후배들이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 또한 처음 박스 회사를 창업할 당시, ‘이러저러한 아이템은 있는데 이를 발전시켜줄 사람이 없을까?’ 하는 마음으로 한성대 창업지원센터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창업학교에 대한 정보를 얻었는데 솔직히 당시에는 크게 만족스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것이 지금의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소중한 자양분이 되어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살면서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을 텐데 사업으로 알맞게 귀결될 때가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으니 할 수 있는 한 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을 성장시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 읽고 보고 듣고 느끼는 상상력

4차 산업혁명시대.

우리는 인공지능이 따라올 수 없는 인간만의 능력으로 상상력, 창의력을 꼽는다.

나만의 상상력을 발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 가히 '상상력의 대가'라 불려도 손색없을 세 거장을 소개한다.

과학과 문학을 넘나들며 초 베스트셀러 작가의 반열에 오른 베르나르 베르베르,

'20세기의 도서관'이라 불리는 불세출의 천재 보르헤스,

세계 도시의 상공을 자신을 작품으로 채워가는 자넷 에힐만.

이들 상상력의 근원은 경계 없는 호기심과 지식의 습득,

또 그것을 융합하는 능력에 있다.



### 거장의 상상력 훑쳐 보기

####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



프랑스의 천재 작가이자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외국 소설가이며 『개미』, 『타나토노트』, 『뇌』, 『나무』, 『파피용』, 그리고 『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써낸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의 마르지 않는 상상력은 어디서 시작된 것일까?

베르나르 베르베르에겐 열네 살 때부터 써온 비밀스러운 노트가 있다. 스스로 떠올린 영감들, 상상력을 촉발하는 이야기들과 사고를 전복시키는 기묘한 지식들, 생각을 요구하는

수수께끼와 미스터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신의 독특한 해석들이 그 노트 속에 30년이 넘게 차곡차곡 쌓였다. 또한 과학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동안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과 접촉한 경험과 과학계의 의미심장한 발견들이 더해지고, 작가가 된 이후에는 인간에 대한 문학적 탐구의 결과들이 더해졌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상상력 사전』은 이렇게 문학, 과학, 인류학, 심리학 등 온갖 분야를 넘나드는 그의 노트들을 한 권의 책으로 엮은 결과물이다. 방대한 지식을 나열해 놓은 듯한 이 책의 키워드가 '상상력'인 이유는 무엇일까.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지식을 이루는 개념과 그 의미를 그대로 읊조리지 않는다. 곳곳에 가미된 그의 상상력과 해석은 우리를 역설적 상황으로 몰아넣어 발상의 전환을 유도하고, 결국엔 우리 안의 상상력을 촉발시킨다.

### 상상 이상의 신비한 것

#### 『보르헤스의 상상 동물 이야기』



아르헨티나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이자 다양한 현대 사상을 설명하고 이끌어 온 불세출의 천재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보르헤스의 상상 동물 이야기』에는 보르헤스가 동서양을 넘나드는 방대한 독서 과정에서 엄선한 신화와 문학, 전승과 문헌 속 상상의 동물들을 가득 담았다. 어릴 적 스케치북 가득 그려 놓은 상상의 존재를 떠올려 보자. 어린이의 서툰 솜씨로 그린 상상 동물일 뿐이라도 그 피조물들에

는 놀라운 창조 의 힘이 존재한다. 인간의 상상력은 정밀하고 교묘한 방식으로 때로 상상 이상의 신비한 것을 창조해 낸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할 지도 모른다고, 존재했으면 어떨까 하고 꿈꾸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보르헤스가 한 권의 책에 담아낸 음험하고 요염하며 성스럽고 우스꽝스러운 상상의 생명체들을 만나며 우리는 스스로 한 번쯤 떠올렸던 존재를 마주치게 될 지도 모른다. 유사 이래 인간이 창조해 온 신비한 동물들은 상상력의 진정한 힘이 인간이 상상하는 그 이상임을 깨닫게 한다. 『보르헤스의 상상 동물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다.

### 비현실적 상상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

#### 자넷 에힐만: 상상력을 진지하게 실천하기(TED Talk)



자넷 에힐만은 미술을 통해 도시 건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혁신적인 조형예술가로서 인정받고 있다. 바람, 물과 같이 보이지 않거나 흐르는 대상을 시각화 한 그의 작품에서 작가 특유의 환상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가 번뜩인다.

회화 작업이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에힐만은 회화 대신 청동작업으로 방향을 틀었지만 청동은 너무 비싸 구하기 힘들었다. 그 시기 매일 바닷가에서 그물꾸러미를 보며 산책을 했는데, 어느 날 그물에서 작업의 새로운 접근 방식을 떠올렸다. 무겁고 단단하며 속이 꽉찬 재료가 아니라 그물을 사용해 비어있고 부피감 있는 형태를 만드는 조형성을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끈 없이 어부들과 협업을 통해 전통적인 그물공예 방식을 통한 작업을 시작한다. 이후 에힐만은 작품의 크기를 키우고 영구적인 설치가 가능하도록 2년간 재료를 찾고 엔지니어와 협업한다. 전통 수공예의 아름다움과 최첨단의 재료와 기술을 합쳐 마침내 그녀의 예술세계는 완성된다.

소소한 것에도 잃지 않는 호기심, 찰나의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는 집중력,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드는 적극성, 변화와 그가 이야기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가는 끈기가 그녀의 상상을 구체화시킨 것이다. 에힐만의 새롭고도 실험적인 작품은 현재 세계의 다양한 장소에서 자유로운 형상으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 소중한 땀의 가치를 아는 사람

미국 공인 회계사 <AICPA> 합격한 최웅규 (경영학과 08학번)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라는 말이 이보다 더 잘 들어맞는 이가 있을까. 26살 나이에 대학에 들어와 늦은 만큼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아왔지만, 막상 뒤돌아보니 그간의 노력으로 빚어낸 ‘구슬들’ 이 서로 꿰어 있지 않고 뽕뽕이 흩어져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바로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서 평생 ‘소장각’인 미국 공인 회계사라는 멋진 목걸이를 얻어낼 수 있었던 08학번 경영학과 최웅규 동문의 인생도전기를 소개한다.**

### 남들과는 다른 특별한 청춘 시대

속을 가늠할 수 없는 우물의 깊이를 재기 위해서는 돌맹이 하나를 던져보면 된다. 돌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소리를 통해 그 깊이와 양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갈림길에서 승률을 예측하는 안전장치로 돌맹이를 던져보는 것이 인지상정일 터이지만, 최웅규 동문은 직접 우물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정면승부를 던졌다.

“입학 전까지 방향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을 꼭 가야 하나, 졸업장으로 내 인생이 달라질까, 이런 저런 고민을 안고 25살에 전역을 하고 나니 대학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학에 가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고 내가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전까지의 자신을 확 뜯어고치고 싶은 마음에 선택한 대학. 그는 늦깎이 입시생으로 정말 열심히 입시 준비를 해 경영학과에 입학했고, 입학년 때는 장학금을 받을 만큼 모범적인 캠퍼스 생활을 보냈다. 그러다 문득 ‘공부를 열심히 해서 대학 4년을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하는 것이 대학 생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것일까?’ 의구심이 들었던 최웅규 동문은 조금 늦은 입학이었던 만큼 더 많은 것을 간절히 경험하고 싶었고 세계 일주라는 목표를 계획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영어, 자금, 그리고 여행. 세 가지를 얻겠다는 목표 하에 호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날 결심을 굳혔다. 일 년 반 정도 일만 해서 목표한 이상의 돈을 모으면서 보니 영어의 필요성이 더욱 느껴졌고, 제대로 공부를 해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생겼다고 한다.

“대학교 입학하자마자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교내 모의 토익 시험을 본 적이 있는데 당시 제 기억으로 310점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점수였죠. 호주에서 일을 하느라 어학원을 다닐 수 없었기에 더욱 영어는 제대로 해 보자는 각오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복학하고 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응모해 미국 대학에서 공부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틈틈히 15개국 86개 도시를 돌 수 있었고, 특히 교환학생의 경험은 그가 미국 공인 회계사 시험을 준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오랜 방향을 겪으며 얻어낸 확실한 자기만의 목표설정, 남들보다 늦었다는 절박함이 최웅규 동문이 지금처럼 뜨거운 삶을 살게 해 준 원동력이 된 셈이다.

### 자신이 설정한 목표 앞에서 물러서지 말기

2017년 12월 미국 공인 회계사 시험(AICPA)에 합격한 최웅규

동문은 졸업하고 2년을 꼬박 시험 준비에 매진했다고 한다. 이 정도의 깊이 있는 공부를 영어로만 준비해야 하다 보니 초기에는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는데, 돌이켜 생각하니 오히려 국내에서 치르는 시험보다 합리적인 요소가 많아 준비만 잘하면 성공확률이 높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AICPA는 크게 4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부분 합격 제도가 존재하며, 각 주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보통 시험에 패스하고 2년 수습 기간동안 회계업무를 이수하면 자격증이 주어지게 되죠.”

미국 공인 회계사 시험의 가장 큰 진입장벽은 영어. 하지만 회계학이 외국에서 온 학문인 만큼 영어에 웬만큼 자신이 붙으면 직관적으로 의미가 와 닿으며 이해가 빨라져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준비 기간은 배경 지식이나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여느 시험과 마찬가지로 입시학원의 광고만 믿기보다는 본인이 발품을 팔아 알아보고 준비하고 경험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최웅규 동문의 올해 계획은 회계법인에 지원해서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것. 가능하다면 향후에 MBA를 준비하는 등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은 바람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너무나 진부하지만, 불변의 진리임에 분명하다. 최웅규 동문이 이를 입증하고 있으니까 말이다.

### 최웅규 동문이 전하는 메시지 : '경영학적 플랜' 세우기

“이솝우화 ‘여우와 신포도’ 처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식의 재단에서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가 개척해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경영학에서 중요시 하는 일별, 주별, 월별로 자기점검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를 모색하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한성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 도전을 멈추지 않으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2018 국제한국뷰티페스티벌 서울시장상 수상한 서다인 (뷰티매니지먼트학과 16학번)

**‘청춘’ 하면 꿈,  
희망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가 먼저 떠오른다.  
새파랗게 젊은 것이 한밀천이니 가슴을 짝 펴고  
살아도 좋을 꽃다운 20대 청춘이건만,  
오늘날 젊은 세대가 처한 현실은  
그리 녹록치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변화무쌍한 시대,  
그럼에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천천히 내딛는  
서다인 학우의 이야기로 힘을 얻어 보자.**

## 배우지망생에서 헤어 디자이너로의 노선 변경

첫눈에 보기에 반듯한 외모가 남다르다 했더니 연기 공부를 했던 배우지망생이었다고 한다. 인생은 예측불허의 연속이어서, 꿈꾸던 배우의 길을 가기에 자신의 한계가 느껴져 중도 포기를 하게 되었다는 서다인(뷰티매니지먼트학과 16학번) 학우가 대안으로 찾은 길이 바로 헤어 디자이너였다.

“연기 공부를 하면서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 내 길이 아니라 하는 확신이 들어 포기를 하기는 했지만, 이제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막막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미용을 한 번 배워보면 어떻겠냐고 권유하셔서 고민 끝에 시작하게 되었죠.”

본격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2년제 전문학교에서 미용을 전공하고, 이론적으로 더 배우고 싶은 욕심에 한성대 뷰티매니지먼트학과 3학년으로 편입한 서다인 학우는 현재 헤어숍과 학교를 오가며 ‘주경야독’의 재미에 흠뻑 빠져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다는 것이 그리 부담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해보고 아니면 다른 길을 찾으면 된다는 편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다행히 이 일이 제 적성에 딱 맞았던 것 같습니다.”

한때 배우를 꿈꾸던 이답게 서다인 학우는 꾸미는 것을 좋아하고, 또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잘 안다. 그런 만큼 다른 사람을 꾸며주는 일도 적성에 잘 맞고 자신의 도움으로 예쁘게 변하는 타인을 지켜보는 재미와 보람이 생각보다 커서 이 일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일주일에 하루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나머지 시간은 헤어숍에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데, 아직은 배울 것이 많은 인턴이지만, 몇 년 현장에 몸담고 있어 보니 기술과 이론이 골고루 조화를 이뤄야겠다는 생각이 절실했습니다.”

미용은 기술적 숙련도가 실력을 좌우하는 만큼 현장 실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다인 학우는 여기에 덧붙여 이론적인 뒷받침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뷰티매니지먼트학과 동기들 가운데는 또래들도 있지만, 헤어숍을 운영하는 원장, 교육실장 등 베테랑들도 있다. 그는 젊은 20대와 나이 지긋한 선배들이 동기로서 서로 정보도 나누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뷰티매니지먼트학과의 매력이라 말하고 웃어 보인다.

## 헤어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꿈꾸다

지난 3월 20일~21일 열린 ‘2018 국제한국뷰티페스티벌 (IKBF)’에서 서다인 학우는 ‘스칼프테라피’ 부문에 참가해 서울시장상을 수상한 바 있다. 헤어 디자이너를 꿈꾸는 그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좋은 경험과 경력이 되어주었을 터.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열심히 연습한 것만 보여주자는 생각이었는데 큰 상을 받게 돼 얼떨떨한 기분입니다. 함께 참가했던 동료들의 도움이 컸고 무엇보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헤어 커트 부문에 출전하기에는 아직 실력이 모자라 두피 케어 쪽을 집중적으로 연습했다는 그는 두피 마사지를 하는 순서나 자세 등을 높이 평가받아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동영상도 찾아보고 동료들과 서로 모델이 되어주면서 서로 평가를 해주는 시간이 의미가 있었다는 서다인 학우는 대회 참가를 통해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

한다.

“고객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두피 마사지는 지압점을 누르는 것이 중요한데, 시원한지 아프진 않은지 등의 반응을 살피면서 서비스를 받는 분의 입장과 서비스를 하는 이의 자세를 다시금 돌이켜보게 되었습니다.”

서다인 학우의 꿈은 헤어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다. 또래보다 비교적 사회진출이 빠른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목표지점에 도달하는 기간을 앞당겼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우리 학우들이 정확한 자신의 목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시간 낭비하지 않고 20대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자신의 진로를 찾아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다 싶으면 다시 돌아오면 되니까 부담 없이 ‘저지르라’. 이것이 젊음의 특권이 아닐까.



## 서다인 학우가 생각하는 상상력이란?

“헤어 디자이너라는 일은 고객의 마음에 드는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라 생각합니다. 화가처럼 자신의 예술적 세계를 마음껏 표출하며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보편적인 기준에서 자신만의 상상력과 경험을 가미하는 것이 헤어 디자이너가 아닐까요.”

# 공학계 여성 롤모델의 꿈, 첫발을 내딛다

〈이브와 ICT멘토링〉 프로그램 참여

글. 전해원 (컴퓨터공학부 16학번)



“

내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 궁금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준비하면서 전공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전공을 좀 더 깊이 공부하여 공학계에서 성공적인 여성 롤모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 ‘학습’이 ‘실무’로 연결될 때의 성취감

학교에서 여러 전공과목들을 배울 때마다, 지금 내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산업 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고 활용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아리 지도 교수이신 조세홍 교수님께서 〈이브와 ICT멘토링〉을 추천해주셨습니다. 〈이브와 ICT멘토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주최하고, IT여성기업인협회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공한 여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인과 이공계 여대생이 멘토-멘티 관계를 맺어 실무형 프로젝트를 수행합니다.

〈이브와 ICT멘토링〉 사업 목적을 살펴보면 참가 의지를 더욱 굳혔습니다. ‘산업 현장의 기업인들과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함으로써 다양한 현장 실무능력 배양’이라는 부분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얻었습니다. 다른 ICT공모전들과는 달리 ICT관련 학과 여대생으로만 구성된 팀이 참가대상이라는 점도 흥미로웠습니다.

공모전 참가 신청에 필요한 수행계획서 작성을 하기 위해서 ICT기업인 멘토와 자주 미팅을 했습니다. 초반 미팅에서는 기업에서 사용되는 낯선 용어와 기술이 어렵게 느껴지고 막막했는데 계속 미팅을 진행하면서 학교 수업만으로는 알기 힘든 여러 분야를 접할 수 있었고,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과 관련되는 내용도 있어서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질의



응답 플랫폼용 그래픽 & 레코딩 솔루션 개발)이라는 주제로 작성한 프로젝트 계획서가 선정되어 〈이브와 ICT멘토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하는 것은 질문자가 그래픽·레코딩 툴을 활용하여 질문하면, 응답자 또한 그래픽·레코딩 툴을 활용하여 답변을 작성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이를 통해 질의 응답자 간 소통에 높은 명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 전공 간, 세대 간 융합을 통해 발현되는 시너지

저희 팀은 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부 학술 정 동아리 DC&M의 3학년 회원 5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DC&M’은 Digital Contents & Multimedia의 약자로 디지털 콘텐츠와 멀티미디어 개발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컴퓨터공학부 외 다른 전공의 학생들도 함께하는 것이 다른 팀과 다른 저희만의 특징입니다. 컴퓨터공학을 복수전공하고 있는 친구들 3명-강가비·김소희(문헌정보전공 16학번), 최민영(경영학부 16학번)-과 컴퓨터공학부 2명-이유림, 전해원(16학번)-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모여 아이디어를 창출할 때 각 전공의 학생들이 가진 능력을 융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5월 10일 수행계획발표회를 시작으로 5개월간(6~10월) ICT기업인 멘토, 지도교수님과 협력하여 프로젝트 멘토링

을 수행할 것입니다. 11월에 수행결과발표회 및 결과물을 시연하여 우수 프로젝트 팀 시상을 하며, 대상팀은 해외 단기 ICT 연수를 지원받습니다.

현재는 5월 10일 수행계획발표회를 준비 목적으로 주기적으로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인 멘토와 미팅하면서 지금까지 접하지 못했던 여러 용어 및 기술들을 알 수 있었고, 저희가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기업인 멘토가 실무에 적용시킬 수 있는 피드백을 해주셔서 아이디어를 공학적으로 변환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도전은 자부심이 되고 자부심은 꿈이 된다

대학생이 되어서 처음으로 참가한 교외 공모전이었습니다. 선정되어서 너무 기뻐서 이런 큰 공모전에 선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전공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또한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고 조사를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진 그저 주어진 공부만 하고 특별한 꿈이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수행을 준비하면서 전공에 애정을 가지게 되었고 전공을 좀 더 깊이 공부하여 공학계에서 성공적인 여성 롤모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대에는 남성이 더 많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더 많은 여성들이 저희를 보며 공학에 도전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일단 해 보자!' 경험의 힘은 생각보다 크다

리투아니아 문화인턴

글. 김지은 (한국무용전공 15학번)



## 변화하는 스스로를 지켜보는 즐거움

리투아니아 문화인턴은 파견을 통해 문화교류의 기회를 얻으면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무용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한국의 전통 무용을 가르치고 있고요. 직접 홍보영상도 만들어 학생들을 모집해 수업을 진행하고 행정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수업 외에도 한국 문화의 날, K-pop festival, 한국어 말하기 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됩니다. 한국과 한국문화를 알리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지요. 매 행사에 한국무용 공연이 있는데요. 한국무용 반 친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소고춤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인턴이라고 했지만 리투아니아에 도착했을 때 행정업무부터 시작하고 학생들까지 제가 모집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리투아니아 친구들은 내성적이라 나서서 무엇을 하는 걸 꺼려한다는 말을 듣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되었죠. 학생을 모집하려면 홍보영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좌절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여곡절 영상을 만드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정말 저를 뿌듯하게 했던 거 같아요. 전공과 다르다고 해서 어렵게만 생각했는데 막상 하고 나니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제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온 친구들의 첫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가 긴장하고 떨렸던 만큼 리투아니아 친구들의 마음도 긴장 반, 기대 반이었다고나 할까요? 첫 개강

행사 때 다들 한국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습니다. 평소에는 소극적일지 몰라도 자신이 흥미를 가진 일에는 누구보다 열성적이었어요. 처음 업무를 시작하며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 '참여율이 낮지는 않을까' 했던 저의 우려가 무색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 비전을 찾고 싶다면, 움직이세요!

저는 어떤 일을 하든 항상 시작에서 막히는 편이었어요. '저걸 어떻게 해? 나는 못해! 도와줘~!' 문화인턴 지원도, 이곳에 와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도 시작이 어려웠고요. 그런데 인턴 활동을 통해 일단 시작하면 어려운 건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시작은 어렵지만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제게 주어지는 기회에 즐거운 마음으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일 발전해나가는 무용수의 꿈, 외국에서 한국무용을 가르치는 꿈. 이 두 가지 꿈을 위해 앞으로 시작을 두려워 않고 지식과 경험을 쌓아가려 합니다. 꿈을 향한 길을 쭉 뻗은 일직선으로 만드느냐, 구불구불하고 험하게 만드느냐는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가만히 앉아 비전을 찾아 헤매기보다 뭐든 경험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해보는 겁니다!



인턴 활동을 통해 일단 시작하면 어려운 건 없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시작은 어렵지만 지레 겁먹고 포기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비전을 찾아 헤매기보다 뭐든 경험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일단 해 보는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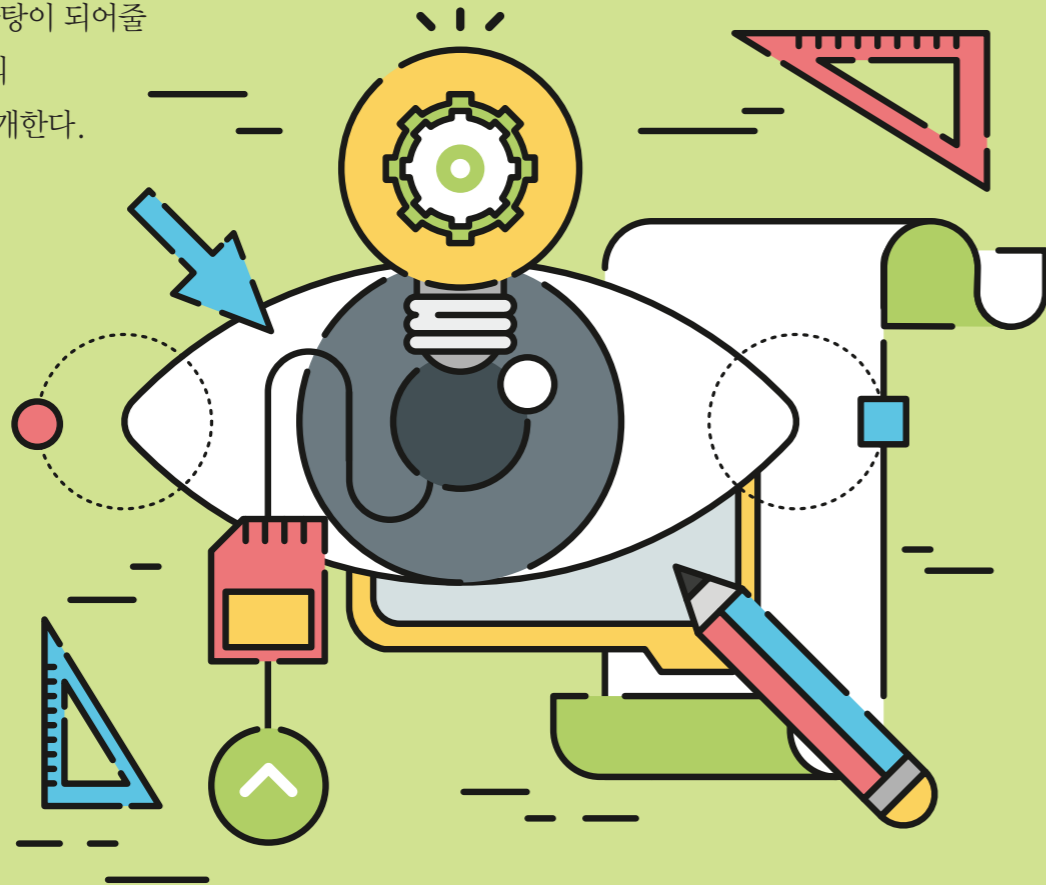


## 꿈을 일깨워 준 기회, 기회를 붙잡아 준 꿈

고등학생이 되고 무용을 시작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쯤 외국에 나가서 한국무용을 가르쳐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방법을 찾기보다 그냥 "하고 싶다"라는 막연한 꿈을 그렸습니다. 문화인턴이라는 기회를 알게 되고 처음엔 '이거다' 싶었지만 막상 시작하려니 '무섭다.' '어떻게 할 지 모르겠다.' 등 못 할 것 같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4학년이다 보니 졸업 작품도 준비해야 해서 가겠다는 마음을 바로 접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교수님의 권유로 지원을 하게 되었고 결국 리투아니아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가 학교에서 진행하는 해외 관련 프로그램에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교수님께서 저를 추천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그것이 알고 싶다

4차 산업혁명에 ‘혁명’이란 단어가 붙는 이유는,  
이것이 산업계와 우리의 생활에  
전혀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기 때문이다.  
거대한 변화 앞에 마주 선 오늘,  
우리는 더욱 풍부하고 정교한 ‘혁명적인’ 상상력을 발휘해  
미래를 상상하고 준비해나가야 한다.  
그 상상의 밑바탕이 되어줄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을 소개한다.



### 블록체인 기술

**생산지에서 우리 집 식탁까지, 삼겹살의 여정을 본다**

블록체인은 이력 관리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예를 들어 내 식탁 위에 올라온 돼지고기의 물류 이력 전체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다. 월마트는 돼지에 식별표를 부착하고 축산농가의 돼지 우리와 사료 창고, 도축장, 냉장고, 운송 트럭, 사료 등 돼지고기가 생산되는 모든 과정에 사물인터넷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든 돼지고기의 생산,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월마트는 이 같은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해 냉동 망고가 상한 원인을 찾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기존 7일에서 2.2초로 줄였다.

### 적층가공과 3D 프린팅

**내 몸에 꼭 맞는 내 옷! 내 오장육부에 꼭 맞는 내 약?!**

몇천 달러만 있으면 개인은 컴퓨터로 제어하는 대형 밀링머신(커터를 상하좌우로 움직여 공작물을 가공하는 기계)을 살 수 있다. 이 장비를 사용해 이케아 세트 10개를 찍어내면, 그만큼의 장비 구매 비용이 메워지는 셈이다. 더욱이 먼 공장에서 물건이 도착하길 기다릴 필요도 없다. 개인 맞춤형 패션 아이템은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특히 맞춤형 3D 프린팅 기술은 헬스케어 산업에 혁명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가 진행되고 기술이 보편화되면서 집에서 약을 직접 제조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 사물인터넷(IoT)

**냉장고와 체중계, 에어컨과 보일러 사이의 은밀한 대화**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사물에서 발생하는 정보를 각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공유하고 분석한다. 사물인터넷을 인공지능 및 로봇공학과 결합시키면서 우리는 사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사물의 문제를 더 쉽게 파악하고,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반면 사물인터넷은 반복 노동과 육체노동에 대한 수요를 줄여 노동자들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 우려가 있다.

### 자율주행

**아침마다 다른 차가 집 앞에서 대기 중**

무인자동차는 단지 사람이 차를 몰지 않는 세상이 도래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인자동차 시대가 되면 전 세계에 자동차 수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자동차가 소유가 아니라 공유의 개념으로 바뀔 게 분명하다. 필요하면 차를 불러 사용하면 되니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면 자동차 대수가 6분의 1로 줄어든다는 예측에 대부분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인다.

### 인공지능(AI)과 로봇공학

**의사선생... 아니, 의사로봇님, 수술 잘 부탁드립니다**

인공지능이 새로운 물리적 시스템에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최근 10년 사이에 로봇공학의 잠재력은 커지고 있다. 인간과 기계는 함께 일하면서 의사, 변호사, 조종사, 트럭운전사와 같이 교육받은 사람이나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의 역할을 줄이면서 점점 대체할 것이다. 실제로 로봇업계는 의료, 헬스 분야의 로봇을 속속 개발하고 출시하면서 로봇의 뛰어나고 일관된 성능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 첨단소재

**와칸다의 비브라늄이 고철 덩어리로 취급받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첨단소재과학은 4차 산업혁명 대부분, 또는 모든 부분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첨단소재과학은 전혀 다른 물질의 세계를 창조하여 공급망을 재편하고 환경을 바꾸면서 소비를 변화시킬 것이다. 많은 산업 분야에서 점차 거세지는 성능 향상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소재를 필요로 하고 있다.

### 참고 도서

『클라우드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더 넥스트』, 클라우드 슈밥 / 『4차 산업혁명 그 이후 미래의 지배자들』, 최은수  
『4차 산업혁명의 충격』, 클라우드 슈밥 / 『손헌덕의 구석구석 4차 산업혁명 탐구』, 손헌덕

## 우리 안의 소통이 지역과 세상의 소통으로 자라나길

〈내 나이가 어때서〉 팀,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봉사

글. 이현주 (문헌정보전공 16학번)

### 학생과 사회가 '관심과 목표' 를 공유하다

〈내 나이가 어때서〉 팀은 저와 이수현(문헌정보전공 16학번), 김현진(도서관정보문화트랙 17학번), 최승규 (디지털인문정보학트랙 17학번), 이렇게 문헌정보학과 16학번 2명과 17학번 2명, 총 4명으로 구성된 팀입니다. 전공, 지역사회, 교내·외 문제 발굴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high success project〉 모집 공고를 보고 전공과 관련하여 평소 도서관 활성화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끼리 모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지식정보사회에서 노년층도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피해졌는데, 그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세대간 정보격차 현상이 문제점으로 인식되었습니다. 이를 도서관과 합동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대학생과 노인의 참여로 상이 계층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장을 형성하고 지역주민들을 끈끈하게 이어서 지역사회를 발전시키는 것을 최종 목표로 잡았습니다.

### 어르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들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 참가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개인별로 원하는 교육의 수준이 다른 것을 파악하여 교육의 방향을 수립하고 추후 교육 내용 또한 보완했습니다.

교육은 1:1로 진행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설명을 하면서 1:1로 배운 내용을 실습하는 과정을 통해 큰 학습효과를 거두었고, 참가자분들도 부담 없이 궁금한 점을 질문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교재에 수록한 스마트폰 기종과 어르신들이 가지고 계신 기종에 차이가 있어 교육에 혼동이 있었지만, 이 역시 1:1 교육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한성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도서활동부에서 맡아 추후에도 이루어질 계획이었기 때문에 교육할 때마다 진행자가 같을 수 없다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참가자별로 일지를 작성하여 이후 교육에서 진행자가 다르더라도 참가자의 수요, 수준, 그리고 배웠던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어르신들이 '문화가 있는 날' 에 '스마트폰 교육' 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 소통으로 이루어가는 공공성 실현의 비전

'교육' 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였지만 저희가 얻은 가장 큰 성과는 '소통' 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은 저희에게 손자들 이야기를 하거나 본인이 아는 영어 표현들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정말 고맙다고 칭찬도 해주셨습니다. 먼저 선뜻 다가와 주셔서 저희도 어색함 없이 다가갈 수 있었고 교육을 하는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스마트폰 교육을 하러, 받으러 모였지만 진실한 소통을 통해 서로 친구가 되어 마음을 나누는 것이죠. '스마트폰 교육' 은 '도서관으로 세상을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는 저희의 꿈을 이루어 가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문헌정보학과를 전공하는 학생으로서 지역사회와 지역 내 도서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뿌듯합니다. 앞으로 '도서관' 을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 소통의 중심이 되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스마트폰 교육’은 ‘도서관으로 세상을 모두가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저희의 꿈을 이루어 가는 첫 걸음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서관’을 단순히 책을 읽고 빌리는 곳이 아니라 지역사회 소통의 중심이 되는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봉사활동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누구보다 밝고 눈부신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다녀온 후로는 스스로 빛나기보다 누군가를 은은하게 비춰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상상은 Share

## 세상을 은은히 비추는 둥그런 빛 하나

바르하나 봉사단, 태국 우따라딧 지역 봉사활동

글. 김예은 (패션학부 16학번)

### 도전하기 가장 좋은 때, 바로 지금

지인들의 추천으로 오래전부터 해외봉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재학년에는 지원을 했다가 자신이 없어 면접 보기 전에 지원을 취소하기도 했어요. 한번 지원을 포기하고 나서 많이 후회했고 지금 아니면 정말 평생 못 하겠구나 생각해서 다시 도전하게 되었죠. 저는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시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봉사활동이 그 '시기' 였던 것 같아요. 막상 지원서를 쓰는 동안 다시 막막함이 있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특별한 재능이 없는 것 같아 '봉사활동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못하면 어찌지' 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아요. 설렘만큼 걱정도 컸지만 후회를 반복하기 싫어 지원했고, 부족하지만 바르하나 봉사단의 부팀장 역할까지 맡았습니다.

### 하루하루를 환하게 밝혀준 우따라딧의 아이들

바르하나는 1월 14일부터 24일까지 태국 우따라딧 지역의 우따라딧 라자밧 대학 부속 초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17명의 봉사단원과 단장님, 부단장님으로 구성된 바르하나 봉사단은 총 9일(교육봉사 7일, 벽화봉사 1일, 한국의 날 행사)의 봉사기간 동안 태국의 초등학생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알리기 활동 등을 하였습니다. 한국어, 과학, 미술, 레크레이션(체육, 음악) 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봉사활동 기간 중 본교의 교류대학인 우따라딧 라자밧 대학의 한국어 교육전공, 국제학부 학생들이 통역 및 운영지원 업무로 저희 봉사단을 많이 도와줘서 순탄하게 진행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따라딧에서의 9일은 매일매일이 다 예쁜 추억이 되서 온종일 이야기해도 부족할 것 같아요. 하루 일과가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반겨주던 우따라딧의 아이들이 특히 기억에 남네요. 저는 미술팀에 속해 있어 만들기 시간이 많았는데요. 만들기 교구를 꾸밀 때마다 아이들이 꼬르르 와서는 한국말로 단원들의 이름을 적어가곤 했습니다. 매일 휴게실 작은 창문으로 지켜봐주던 어린 꼬마 친구가 기억에 납니다. 봉사 마지막 날에 그 친구와 사진을 못 찍으면 아쉬울 것 같아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 몸도 마음도 따뜻했던 겨울의 봉사

형식적인 대답일수도 있지만 봉사를 하면서 주는 것보다 받은 것이 더 많았던 봉사였어요. 욕심 없이 남을 배려하는 아이들의 행동을 보며 자신을 더 돌아봤던 것 같아요. 2주간의 공동체 생활을 하며 별 탈 없이 봉사활동을 마무리한 저희 단원들과 단장님, 부단장님, 그리고 태국 우따라딧 라자밧 대학과 친구들에게 너무 감사했어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현지의 친구들과 서투른 영어로 친해져서 한국 돌아가는 길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봉사활동을 다녀오기 전까지는 누구보다 밝고 눈부신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다녀온 후로는 스스로 빛나기보다 누군가를 은은하게 비춰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안의 뻘족했던 부분이 조금이나마 둥글둥글해졌달까요.

유난히 추웠던 겨울, 따뜻한 나라에서 받은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보려고 합니다. 학원을 갈까 봉사활동을 갈까 고민했었는데 학문에서 얻을 수 없는 깊은 것을 배워 뿌듯해요.

# 마음으로 느끼는 봉사의 참 의미

사회봉사단 H.U.V.

글. 고민수 (정보시스템공학과 13학번)

## 작은 감동이 봉사의 씨앗이 되다

봉사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학생회장을 역임하면서 학우들을 대표하여 봉사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사회봉사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017년 동계 국제 봉사단에 참여하면서 사회 봉사에 본격적으로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저학년 아이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태권도 교육을 하는 봉사를 하면서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가야해서 설 틈 없이 움직여 힘겨웠던 기억이 있지만 이것도 지나 보니 정말 좋은 경험과 추억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송별회에 그 아이들이 저희에게 감사하다는 의미로 노래를 합창해주었는데 그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 국제 봉사 경험을 계기로 H.U.V.에도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30명으로 구성된 H.U.V.(Hansung University Volunteer)는 한성대학교를 대표하는 사회봉사단으로써 학교 근교에 거주하시는 독거노인 분들에게 도시락을 배달하고 성북구 주변 아동 시설에 교육 봉사하는 점프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북구에 어려운신 분들을 돕고 성곽 주변 벽화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 지역 사회봉사의 hub, H.U.V.

봉사활동을 지속하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물질적 보상으로 느끼는 즐거움보다 마음으로 얻는 보상이 더 뜻깊다는 것 또한 느꼈습니다.

H.U.V.는 저희 학교에서 처음 창설된 단체인만큼 한성인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봉사활동에 대한 관심과 노력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하게 참여할 생각입니다. 성북구민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도 기획하여 진행할 계획이 있고 나아가 여러 대학 사회봉사단과도 협동하여 봉사활동을 다채롭게 이어나가려 합니다. H.U.V가 지역 사회봉사의 중심과 허브(hub)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로서 한성대학교가 대학생 봉사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봉사활동을 지속하면서 '남을 돕는다'는 것의 의미를 알게 되었고 물질적 보상으로 느끼는 즐거움보다 마음으로 얻는 보상이 더 뜻깊다는 것 또한 느꼈습니다.”



# 30년 요리 장인의 손끝에서 시작되는 상상력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부 김용진 교수



쿡방, 먹방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시대. 이미 요리와 음식에 대한 콘텐츠는 하나의 문화와 이슈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특히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단순히 맛집을 찾아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요리를 배우고 이를 직업으로 삼고자 열정을 불태우는 이들이 많다. 주방 경력 30년이 넘는 베테랑 선배의 눈에는 이 청춘들이 요리에 쏟는 열정이 기특하고 대견하기만 하다.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고 훌륭한 후배를 양성해 국가대표 조리장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크다. 국내 특급호텔 총주방장 출신의 대선배이자,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용진 교수가 기대하는 ‘청출어람’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 ‘식(食)’은 기본에 충실한 것에서 시작된다

아는 만큼 보이고 또 보이는 만큼 실행하기 마련이다. 3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주방을 지켜왔기에 김용진 교수는 요리에 대한 남다른 철학과 자부심이 있다. 단순히 맛이 뛰어나다고 해서 ‘좋은 음식’이라 할 수 없으며, 요리하는 이로서 제대로 된 덕목을 갖출 때 그 요리는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믿는다. “기본이 갖춰져야 제대로 된 요리가 탄생할 수 있어요. 음식은 만드는 이의 정성이 깃들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절대불변의 가치입니다. 주방에서 정성 들여 만든 음식을 고객들이 맛있게 드시고 행복해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요리하는 사람의 가장 큰 보람이에요. 물론 맛도 좋아야 하지만, 무엇보다 요리에 임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베테랑이 학생 신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일 터. 김용진 교수는 그때의 결정이 옳았고, 다시 돌아간다 해도 자신의 선택은 같았을 것이라 확신한다. 대학원을 다니는 동안 학생 신분으로 돌아가 공부도 하고 여러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요리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철학을 다시금 일깨우는 소중한 시간이 되어주었던 까닭이다.

## 청출어람의 보람을 기대하다

현재 그가 재직하고 있는 우송대학교 외식조리학부는 훌륭한 셰프들을 양성하는 사관학교로 통한다. 규모나 시설 면에서도 전국 최고를 자부하는 만큼 이곳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성장해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이 김용진 교수의 큰 보람이다.

“학생들 사이에서 ‘김용진 교수’ 하면 그래도 제법 인기가 있는 교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웃음) 아무래도 제가 가진 풍부한 현장경험과 거기에서 비롯되는 실질적인 노하우들을 학생들에게 전수하다 보니 현실적으로 와 닿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학생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따뜻하고 자상한 스승이지만, 실습실에 들어가서는 무서운 얼굴을 할 때도 있다. 주방에서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말라는 뜻에서 엄하게 가르친다고 한다.

“우리 세대와는 달리 요즘 젊은이들은 참 스마트하고 창의적입니다. 하나를 가르치면 두세 개를 알아듣고 또 하나라도 더 열심히 배우려는 자세들이어서 제 역량이 닿는 한 많은 지식을 전수해주고 싶어요. 지난해 상하이에서 열린 요리경연대회에 제가 가르친 학생들이 출전해 금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그중에서도 아주 출중한 학생이 있어서 잘 가르쳐 국가대표로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직접 제 손으로 요리를 하다 보면 이것저것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생겨나고 결국 사람의 상상력은 손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김용진 교수. 세대가 변하고 언젠가는 제자가 자신을 넘어서는 날을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싶다는 그의 바람대로 국가대표 주방장을 키워내 청출어람의 보람을 만끽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김용진 교수는 가든호텔, 코엑스 인터콘티넨털호텔, 그랜드 인터콘티넨털호텔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특급호텔 총주방장을 거쳐 현재 외식조리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지만, 한성대학교 경영대학원 호텔관광외식경영학과 동문선배이기도 하다. 요리에 관한 도시급인 그가 대학원을 가겠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적잖이 놀라기도 했었는데, 주방장으로서 경력이 쌓이고 인지도가 높아질수록 배움에 대한 갈증이 커져갔다고 한다. “현장에서 축적한 노하우 이외에 요리를 학문으로써 제대로 배웠으면 좋겠다는 염원을 늘 품고 있었죠. 주방일이 워낙 바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 많다 보니 대학원 진학은 요원한 일처럼 여겼는데, 자꾸 미루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 소통하고 공감하는 우리 시대 작가를 꿈꾸다

회화과 96학번 **곽수연** 작가



**보는 사람도 기분 좋아지는 환한 미소, 뭔가 재미난 것을 발견한 듯 반짝이는 까만 눈망울. 온화한 가운데 강인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니 그가 창조해내는 세계 역시 상상력이 가득 묻어나오기가 쉽다. 반려동물에서부터 신화 속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 식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소재를 차용해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내고 싶었다는 회화과 96학번 곽수연 작가를 카메라에 담았다.**

## 동물을 통해 인간 세계를 말하다

양증맞게 생긴 치와와가 꽃밭에서 뒹굴고, 의문스러운 표정의 프렌치 불도그가 공작새와 더불어 자연스러운 앙상블을 이룬다. 사람과 가까운 개를 주제로 한 덕분일지, 아니면 우리 정서에 익숙한 한국화를 전공한 까닭인지 아무튼 그녀의 작품 속에는 익숙하면서도 정감 어린 따뜻함이 느껴진다.

“작품마다 개를 비롯한 반려동물들이 등장하는 이유를 궁금해 하시는데, 개는 사람 가까이에서 생활하면서 주인의 성격과 모습을 상당히 닮아가잖아요. 그런 면에서 인간의 다른 면을 볼 수 있고 표현할 수 있는 주제라 생각했습니다.”

반려동물을 주제 삼아 사람을 대변하고 싶었던 만큼 곽수연 작가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개나 고양이는 단순히 귀엽고 예쁜 동물의 범주에 그치지 않는다.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면서 생기는 에피소드를 그림으로 옮긴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터다.

20년 가까이 작가로 활동하면서 개를 주제로 한 그림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일명 ‘멍멍작가’로 불리기도 했던 그녀가 이번 <산해경>이라는 전시를 통해 철학적으로 한층 더 깊어진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산해경(山海經)은 중국의 오래된 기서(奇書)로, 상상 속의 기이한 사물과 인간, 신들에 대한 기록과 그에 대한 삽화가 실린 지리서이자 신화집이다. 이 전시에서 그녀는 책거리, 무릉도원 같은 이상적인 공간 설정을 토대로 인간화된 동물들을 통해 사람을 공부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인간의 정신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12지신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화를 접했습니다. 신화 속에 비친 인간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산해경>을 콘셉트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곽수연 작가는 경력이 쌓일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깊어지고 바라보는 대상도 넓게 확대되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특히 자연 속에서 인간과 동물, 신이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순환하는 모습에 매료돼 이번 전시를 준비하는 내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특히 이번 전시가 열리는 문래 창작촌이 자신이 추구하고자 했던 신화적 이미지를 드러내기 위해 최적의 장소라 생각해 처음으로 설치작업에도 욕심을 내 본 만큼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 학교,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확장시켜준 상상력 인큐베이터

한성대 예술대 회화과 학사와 석사를 마친 곽수연 작가는 대학

시절을 돌이켜 가장 치열하게 고민하고 열정적으로 그림을 그렸던 시절이라 회상한다. 동물과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그녀에게 상상력은 모든 작품 활동의 근원이 될 터, 상상력을 배양하고 길러낼 수 있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 준 곳이 학교였던 만큼 고마운 마음이 크다고 말한다.

“한성대 회화과에 워낙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았어요. 후배들에게 자극제이자 롤 모델이 되어주셨죠. 저 역시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는 선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곽수연 작가는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되다 보니 솔직히 최근 후배들의 경향은 잘 모르지만, 자신의 학부 시절은 원 없이 그리고 많은 가르침을 받았던 황금기였다고 말하며 웃는다.

“대학에 다니는 동안 배우고 습득한 테크닉이 지금의 저를 완성시켰다고 해야 할까요? 커리큘럼도 탄탄했고, 교수님, 강사님들이 왕성하게 활동하시면서 열정적으로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참 많은 혜택을 받은 세대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한성대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곽수연 작가는 학교에 몸담고 있는 동안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조언을 잊지 않는다.

곽수연 작가가 소망하는 모습은 세상과 소통하는 예술가로 살아가는 것. 더불어 사는 세상, 기왕이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는 그녀는 그림으로서 즐겁게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만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한다. 훗날 ‘필드’에서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전개할 후배들을 만날 날을 기대한다는 인사를 끝으로 그녀와의 만남을 마무리했다.

## 곽수연 작가가 생각하는 상상력의 원천은?

“작가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일상생활에서 에피소드를 찾아내고 메모를 하는 편입니다.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여성으로서의 삶을 경험해보니 그전에는 몰랐던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생겨났고, 이와 같은 새로운 경험들이 쌓여 작품 활동에 많은 영향을 끼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성대,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가' 주제로 <삶과 꿈> 독서토론대회 개최

본교는 지난 5월 25일 교내 낙산관 대강당에서 상상력교양교육원 주관으로 '인간은 공동체 안에서 행복한가'란 주제로 독서토론대회를 진행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번 대회는 <삶과 꿈> 수업을 듣는 본교 1학년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논리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력 확장 및 읽기, 쓰기, 말하기 능력 향상을 돕기 위해 기획됐다. 유발 하라리의 저서 '사피엔스'의 주제인 '인간의 행복에 법과 질서 등 규범이 중요한가, 아니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한가'에 대한 내용으로 팀별 3인1조로 총 10개 팀이 참가했다. 예선대회를 거친 뒤 'HOT팀(IT공과대학 서지완, 배한성, 이재웅)'과 'y=e^x팀(IT공과대학 1학년 임세진, 정시현, 조문근)' 총 2개 팀이 <삶과 꿈> 독서토론대회 본선에 진출했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독서토론대회 우승자는 "인간은 개인적인 삶을 향유하기보다는 사회의 규범과 규칙, 질서를 따르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주장을 펼친 'y=e^x팀'이 선정됐으며, 부상으로는 각 40만원의 장학금과 비교과포인

트 80점을 수여받았다. 아깝게 우승을 놓친 'HOT팀'은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장학금 각 20만원과 비교과포인트 60점이 수여됐다.

## 한성대, 일본 주요거점 내 3개 대학과 교류협정 체결

본교 국제교류원(원장 김승천)은 5월 16일(수)~19일(토) 4일 간 일본 교토, 오카야마, 히로시마 등 주요 거점도시 3곳을 방문하여 교토부립대, 산요학원대학, 히로시마국제학원대학 등과 학술교류 및 학생교류에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교토부립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논의를 마무리하였으며, 올해부터 일본의 10월 학기에 맞춰 본격적인 교환학생 파견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인문사회 계열뿐만 아니라 이공계를 포함한 교토부립대학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학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또한 2017년 본교 국제교류원과 교류협정을 체결했던 산요학원대학을 방문하여 대학 간 MOU를 체결하였고, 본교는 산요학원대학으로부터 더 많은 학생들을 더욱 다양한 프

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히로시마국제학원대학은 2014년부터 한성대 예술대학과 학생교류 행사 등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이번 기회에 대학 간 MOU를 확대 체결하게 되었다. 본교는 이번 MOU 협정으로 기존 홋카이도 교육대학, 지성관 대학을 비롯하여 일본 내 5개의 파트너 대학을 확보하게 되었다. 앞으로 공과대학 학생들의 일본 내 인턴십에 대한 거점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한성대 학술정보관, 3년 연속 '길 위의 인문학' 사업 선정

본교 학술정보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의 2018년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이 사업은 자유학년제를 실시하는 중학교의 수요를 충족하고, 인문학을 통한 청소년의 자아치유와 삶의 행복감 제고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자유학년제 학생들은 주제 도서와 연계한 인문학프로그램에 참가해 성찰과 사유를 통해 삶의 가치관에 대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그램에 참가할 성북구 소재 자유학년제 중학생 100여 명은 '삶과 역사가 공존하는 우리 마을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오는 8월 20일부터 한 달 간 지역사회와 연계된 인문학 강연과 탐방에 참가할 계획이다.

## 한성대, VR/AR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 참여기관 선정

본교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2018년 지역 VR/AR제작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참여기관으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VR/AR 제작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VR/AR 산업 성장의 지역 거점화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VR/AR 콘텐츠 개발 및 산업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서울 VR/AR제작지원센터'는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기관으로 센터 구축 및 전체 사업을 주관하며, 본교는 사업 참여기관으로 VR/AR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을 포함한 다양한 육성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성북구청과 함께 VR/AR 기업 육성을 위한 공간 및 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본교는 대학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해 '한성대 VR/AR EC Lab'을 신설하고, VR/AR 기술 연구 및 개발을 통해 참여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성대, '2017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인증대학 선정

본교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인증대학으로 선정

됐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는 국제화 업무를 추진하는 대학들의 질 관리 및 우수 외국인 유학생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인증 필수지표인 △불법 체류율 △중도탈락률, 핵심여건지표인 △유학생 등록금 부담률 △의료보험 가입률 △언어능력(한국어·영어) △신입생 기숙사 제공률 등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에 인증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사증(MSA) 발급심사 기준 완화와 절차 간소화, 정부초청장학생(GKS) 사업, 국제화 관련 정부 재정지원 사업 신청 시 우대 혜택을 받는다. 또한 인증결과는 한국유학중환시스템과 외국 정부 등 국내·외에 공개돼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선택 시 공신력 있는 정보로 활용된다.

## 한성대 경제학과 베프톡(BFT 토크쇼) 진행

본교 상상력 축제의 서막은 'BFT 토크쇼(이하 베프톡)'로 시작했다. 경제학과에서 기획한 베프톡은 교내 상상관 컨퍼런스홀에서 5월 1

일에 1차, 5월 29일에 2차로 진행되었으며 6월 5일에 3차로 마무리된다. 베프톡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구성원들이 각자의 지식을 자발적으로 나누게 하고, 학생들에게 취업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보통신미디어 분야에 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됐다.

1회차 베프톡은 '경제와 건강 창업'이라는 주제로, 한성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2016년 학생기업 매출 1위를 기록한 '건강한 형제들'의 박준수 대표, '델리케이' 육류수입업체 김수정 대표 등 건강 분야 창업자들의 특강으로 구성되었다. 2회차 베프톡은 전 평창올림픽 대변인인 '오라티오' 나승연 대표, 한성대 이우관 명예교수 등이 멘토로 참여해 정보통신 뉴미디어 산업에 대한 비전, 프레젠테이션 기법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6월 5일 진행되는 3회차 베프톡은 '취업의 기회, 일본을 해부하다'라는 주제로 일본 취업 시장에 대해 소개하는 장이 마련된다. 이밖에도 8일(화)에는 글로벌 콘텐츠 대표 기업인 CJ그룹의 CJ Hello, CJ E&M 사육을 방문하여 OTT서비스 소개 및 시연, 스튜디오 견학 등의 체험을 할 수 있는 행사가 진행된다.





## 지역사회 봉사를 위한 사회봉사단 '허브(H.U.V)' 발대식 개최

월 3일 본교 컨퍼런스홀에서 한성대 사회봉사단(Hansung University Volunteer service center) 허브(H.U.V) 1기 발대식을 진행했다. 허브(H.U.V)는 지역 사회봉사의 중심과 연결고리로서, 본교의 교육이념을 몸소 실천하고 지역사회에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야에서 봉사활동 허브(hub)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선발됐다.

본교 학생 30명으로 구성된 허브(H.U.V)는 한성대-성북미래나눔학교, 독거노인 도시락 배달 봉사, 연탄봉사, 김장봉사 활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최천근 학생처장은 환영사에서 "허브(H.U.V)는 대학, 구청, 사회적 기업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에게 봉사하는 우수한 사회봉사 활동의 사례이다. 특히, 봉사 활동에 참여한 대학생과 청소년들의 수기를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의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2018학년도 중등교원임용고사에서 재학생 2명 포함 총 6명 합격자 배출

본교는 2018학년도 중등교원임용고사에서 총 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차경태(역사문화학부 10학번), 김병국(문헌정보 12학번), 박건우(무역학과 11학번), 김다인(문헌정보 13학번), 김태석(국어국문 08학번), 지혜란(국어국문 10학번)가 합격의 주인공. 교원양성교육과정 신재홍 교수는 "365일 캠퍼스, 한성 Leaders(고시반) 등 체계적인 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임용고사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 제27기 한성 앰버서더 중간 간담회 개최

4월 11일 본교 국제교류원 언어교육센터 한국어과정에서는 제27기 앰버서더-한성대학교 학부생과 한국어과정 외국인 유학생 약 100여

명이 모여 '중간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중간 간담회는 지난 3월 21일 미래관 DLC에서 결연식을 개최한 이래 참여 학생들이 약 3주간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공유하고, 활동상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주고받는 등 지금까지의 앰버서더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행사이다.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약 세 시간 동안 이어진 간담회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교 상상관 12층 컨퍼런스홀에 모여 중간간담회를 가지고 결연식 이후의 활동에 대해 조별발표를 했다. 이후 낙산공원, 낙산정원, 의화정 등을 직접 찾아 '정해진 장소에서 단체포즈 사진찍기' 미션 활동을 수행하였다. 활동이 끝나고 본교 상상관 지하 1층 한국어과정 사무실에 다시 모여 미션 수행 결과를 보고한 후, 한국어과정 측이 준비한 기념품을 수령하였다.



## '2017년 대학 진로취업 컨설팅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

본교는 교육부가 주관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원장 나영선)이 시행하는 '2017년 대학 진로취업 컨설팅 사업'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2016년 처음 시행된 대학 진로취업 컨설팅 사업에 본교는 2차년도인 2017년 12월 12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참여하였다. 본교는

진로분야에 있어서 2017학년도부터 전면적인 전공트랙제 및 모집단위 광역화가 시행되어 학생의 전공선택권이 강화됨에 따라 적극적인 진로도 및 진로교육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이 결과 2017학년도 신입생의 74.3%가 1학기 기수요조사와 다른 트랙을 선택하였고, 융합적 트랙을 선택한 비율은 36.5%로 나타나 대학 발전 목표인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인재 육성 명문대학'을 구현하고 있다고 평가받았다. 또한, 취업분야에 있어서는 재학생의 일경험 확대에 중점을 두고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2017년 대학청년고용센터 운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평가되고, IPP형 일학습병행제 사업에서는 2년 연속 우수 대학으로 선정되었다.

## 경제학과 뉴미디어 기업·경제 캡스톤 디자인 과정 개설

본교 경제학부가 2018년 1학기 캡스톤디자인 과목('뉴미디어 기업·경제 캡스톤디자인', 담당: 이내찬 교수)을 개설하였다. 이 과목은 정보통신미디어(케이블TV방송, 이동통신, 포털) 경제학 분야에서 학생들의 실무 경험 및 이슈 발굴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으로, 실무 연계를 위해 케이블TV방송의 대표 주자인 현대케이블 TV(HCN, 대표이사: 유정석)와 콜라보를 통해 본사 방문 및 현장 전문가에 의한 강의를 진행하는 한편, 창의적 사고방식 체함을 위해 독일의 에스에이피(SAP)의 디자인 씽킹(design thinking)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실무와 이론의 융합을 체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 글로벌 K-뷰티 마스터클래스 진행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학과장 한혜련)가 3월 27일(화), 본교 뷰티센터에서 태국 내 토털 뷰티샵 대표들과 미용사업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K-뷰티 마스터클래스'를 진행하였다. 이상한 총장이 본격적인 교육 진행에 앞서 환영 인사를 건넸으며, 이어진 본 교육에서는 국제미용인들에게 한국의 최신 뷰티 트렌드를 접목한 연예인스타일의 헤어, 메이크업, 업스타일 기술을 선보였다.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K-POP에 이어 K-뷰티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한성대학교의 뷰티 특성화를 홍보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세계 미용인들에게 한국의 뷰티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나갈 계획이다.

## 김형수 스마트경영공학부 교수, 2018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 수상

김형수 스마트경영공학부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가 수여하는 '2018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Albert Nelson Marquis 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수상하였다. 알버트 넬슨 마르퀴즈 평생공로상은 각 분야의 학술 역사에 길이 남을만한 탁월한 연구성과나 사회적 공헌을 제공한 인물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2010년과 2015년 이미 두차례나 세계 인명사전 마르퀴즈 후즈 후에 등재된 바 있는 김형수 교수는 국내외 유명 학술지와 전문서적을 통해 데이터분석과 CRM 전략 분야의 학술연구를 발표해왔으며, 국내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의 CRM 컨설팅을 이끌어 왔다.



## 특허청과 제7차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업무협약 체결

본교와 특허청이 2월 23일(금) 한성대학교 상 상관 대회의실에서 '제7차 지식재산 교육 선도 대학'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지식재산 교육 선도대학 사업은 대학의 지식재산 교육기반을 강화하여,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올해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성대학교는 지식재산 교과목을 개설·운영하고, 학생들의 지식재산권 확보 및 관련 대학의 참가를 지원하는 등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 교육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 한성대-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업무협약

본교가 운영하는 성북구 시니어 기술창업센터는 최근 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사회적 기업 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5월 1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창업 취약지구인 동북4구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희망자에게 공동 포럼, 교류회, 창업교육 등을 제공한다. 신현덕 성북구 시니어기술창업센터장(한성대 교수)은 "지역 내 다수 대학 및 연구소를 바탕으로 지식기반 산업이나 사회적 기업 창업기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명훈 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장은 "사회적 기업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아이디어와 최신 기술 활용이 중요한 만큼 성북구 시니어 기술창업센터와 협력해 창업자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권오혁 교수 '제12회 2017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사회봉사 부문 대상 수상

본교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권오혁 교수가 12월 15일(금), 국회 VIP룸에서 열린 '제12회 2017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에서 우리 사회의 희망과 국격을 높이는 사회공헌 공로를 인정받아 사회봉사 부문 대상(훈격 통일부장관상)을 수상하였다.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은 한국서비스산업진흥원과 사회각계의 위원들로 구성된 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

하는 행사로 사회 각 분야에서 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단체·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그 공로를 우리 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 한미애 교수, 2017년 도시재생 유공시민 표창 수여

본교 캠퍼스타운 사업단 한미애 교수가 12월 19일(화),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을 수여받았다. 한미애 교수는 성곽마을 시민누리광장 조성사업, 보물찾기 전시, 지역주민 문화해설사 양성교육 등 도시재생 프로그램을 기획 및 실행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에 공헌해 오고 있다.



## 제22회 전국 초·중·고등학교 무용경연대회 개최

제22회 한성대학교 무용경연대회가 28~29일 교내 낙산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성대 무용경연대회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현대무용, 한국무용, 발레 등 종목별로 경연을 진행한다. 한국무용 부문에 출전한 박민수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한성대가 무용학과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는데 작품 완성 후 첫 무대를 이곳에서 선보여 감회가 뜻깊다"고 말했다.

전체 대상 1명과 부문별로 특상,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수상자를 선정해 이뤄진다. 특히 고등부(고학년) 수상자 중 최우수자는 한성대 입학 시 첫 학기 수업료의 50~100% 장학금을 지급하는 특전이 주어진다. 아울러 한성대 2019학년도 신입학수시 특기자전형 응시자격을 부여한다. 김남용 한성대 무용학과 학과장은 "22회째를 맞은 한성대 무용경연대회는 잠재력 있는 미래 무용수를 발굴하는 동시에 무용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량을 뽐낼 수 있는 자리"라며 "한성대 무용학과는 전국 우수 무용단의 수석 무용수를 비롯한 많은 인재를 배출한 전통과 역사성을 지녔다"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무용계를 이끌 전문 무용수를 배출하는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빅데이터기반 모바일 솔루션 기업 (주)익스모바일-한성대학교산업협력단 MOU체결

빅데이터 모바일 솔루션기업 (주)익스모바일(대표 정성채)은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김진환)과 ICT에 대한 인적교류와 빅데이터 기술 및 모바일 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를 정보통신 및 컴퓨터 공학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과 학교 산학협력단 간의 업무협약을 맺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업 대표와 산학협력단 단장과 컴퓨터공학부 김동희 교수님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으며 학문적 교류와 인적 교류 그리고 실제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 교류를 통해 학문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기업과 학교가 함께 발전한다는 취지로 이

루어 졌다. 익스모바일과 한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컴퓨터공학부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및 모바일 분야에 있어 교류를 더욱 활발히 하여 2018년 기술연구개발 R&D부분에 서로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 보훈처 자체평가위원장에 한성대 이창원 교수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역량 등 3개 분야 8개 소위원회에 각계 전문가 28명으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한성대학교 행정학과 이창원 교수(58·사진)를 위촉했다고 5월 6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행정개혁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맡고 이창원 교수는 한성대 기획처장, 교무처장, 한국정책과학회 회장, 한국조직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는 보훈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자체평가계획 심의, 자체평가계획에 따른 이행실태 중간점검과 평가, 정책자문 등을 맡게 된다.

## 북경외대 초청 공자학당 설명회 실시

본교 국제교류원은 최근 북경외국어대학교 관계자를 초청해 공자학당 설립을 위한 설명회 및 간담회를 열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 한성대 측에서 이상한 총장 등 관계자가, 북경외대 측에서 자더중 부총장, 장샤오후 이 공자학원 사업처장 등이 참여했다. 중국 공자학원은 중국교육부 직속 기관으로 세계 각국에 중국어·문화 교학 자원 및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중국 공자학당 자격을 취득해 공자학원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에게 운영금과 서적을 지원한다. 자더중 북경외대 부총장과 장샤오후 이 공자학원 사업처장은 "공자학원 설립을 위해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한 한성대에 감사하다"며 "공자학원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천 한성대 국제교류원장은 "한성대는 지난 2년간 공자학당을 자체적으로 운영했다"며 "이번 기회로 정식 공자학당을 설립해 한성대 재학생뿐 아니라 지역민에게 중국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IPP사업단, IPP형 일학습병행제 장기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한성대 IPP사업단(단장 조세홍)은 지난 4월 17일(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고, IPP·Uni-Tech 허브사업단에서 주최하는 '2017년 IPP형 일학습병행제 [장기현장실습]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IPP사업단 부문, IPP실습기업 부문 등 총 2개 부문에서 수상을 하였다.

업 등으로 확대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행정대학원 - 행정융합지식 서비스협동조합 공공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본교 행정대학원과 행정융합지식서비스협동조합이 3월 13일(화) 한성대학교 상상관에서 민원행정서비스 분야의 실무적 지식을 겸비한 공공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두 단체는 상호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국내 민원행정컨설팅 인력의 수준을 개선하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인재육성, 정책기획 및 발굴, 기업지원, 인력정보 교류 등 긴밀한 협력활동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 '웹방화벽 교체 및 디도스 공격방어 장비' 구축

본교는 디도스 공격방어 솔루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 보안기능을 고도화하고자 '웹방화벽 교체 및 디도스 공격방어 장비 사업'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F5네트웍스를 선정해 F5의 웹방화벽 솔루션인 'F5 BIG-IP 애플리케이션

시큐리티 매니저(BIG-IP Application Security Manager)'를 도입해, 웹 애플리케이션 보안 및 SSL 가시성을 확보하고, F5 BIG-IP 고급방화벽매니저(BIG-IP Advanced Firewall Manager)로 디도스 방어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본교는 지능화된 웹 공격에 대한 방어, 네트워크 공격방어 및 SSL 암호화 등 보안 기능을 고도화하고, 보안기능이 강화된 고 성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플랫폼으로 IT 인프라를 변화시켰다.

## '천원의 기적' 미용봉사로 쌀 1톤 기부

본교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 한디원)은 지난 5월 8일 오전 11시 성북지역 미용봉사 '천원의 기적'을 통해 모금된 사랑의 쌀 1톤(10kg·100포)을 성북구 삼선동 주민센터에 기부했다. '천원의 기적'은 한디원과 산학협력을 맺은 '비아이티살롱', '올가휴' 소속 디자이너와 한디원 미용과 학생이 함께 지역 주민을 위해 컷트, 염색, 스킨케어 등 다양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용봉사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본교 본관 뷰티센터에서 진행된다. 기부한 쌀은 미용서비스를 제공받은 주민들이 1천 원 이상씩을 기부해 모인 250만 원으로 구매한 것이며, 장수마을, 369마을, 삼선동 노인정 등 성북지역 불우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 동아리 및 학습 박람회 행사 개최

지난 3월 14일부터 15일 이틀간 교내에서 동아리·학습 박람회가 진행되었다. 이번 박람회에는 한성대 42개 동아리가 참가하여 신입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홍보 활동을 전개, 신입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또한 학생들이 알찬 대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성인 재상 장학제도, 창업프로그램, 국제교류 프로그램, IPP사업단 등 다양한 학생 참여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하며 학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 '뉴욕 그래픽스 애뉴얼 2018' 대상 수상

지난 1월 19일 '뉴욕 그래픽스 뉴 탈렌트 애뉴얼 2018(Graphis New Talent Annual 2018)'에서 본교 부설 디자인아트평생교육원(이하 한디원) 시각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포스터,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등에 18개 작품(17명)을



출품하여 대상 2개, 금상 4개, 은상 4개, 메리트 8개 등을 수상했다.

'뉴욕 그래픽스 애뉴얼'은 74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 연감(年鑑)으로 평가받는 국제 공모전이다. 특히 'Graphis New Talent Annual' 부분은 세계 각국 명문 디자인 대학의 다양한 작품들이 출품돼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는 국제 대학생 디자인 대회이다.

'대상'에는 김단비(3학년), 장혁준(3학년)이 수상하며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 이밖에도 '금상'에는 하성현(3학년), 정희진(2학년), 이채원(3학년), 이찬규(3학년), '은상'에는 유진아(3학년), 안경환(3학년), 정소라(3학년), 박민경(3학년), '메리트상'에는 박예지(3학년), 박가해(3학년), 노현경(3학년), 김보균(3학년), 김종명(3학년), 박현진(3학년), 정소라(3학년), 박종웅(3학년) 학생이 수상했다. 올해 '뉴욕 그래픽스 뉴 탈렌트 애뉴얼 2018'에 참가한 국내 대학 중 한디원 시각디자인전공 학생들의 작품이 가장 많은 수상을 하게 됐다.

지난 1월 3일과 5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한성 커뮤니티 교육사업 수료식을 가졌다.

## 초·중학생 대상 수학·과학 교실 수료식 거행

본교는 작년 11월 17일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8주 동안 성북·종로구 지역 초·중학교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수님과 함께하는 신나는 스팀(steam) 놀이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난 3일에 초등학생반 5일에 중학생반의 수료식을 거행했다.

초등학생반 수료식에 참석한 정성원(서울사대부설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은 "제일 기억에 남는 수업은 코딩 수업과 뽀미우스 띠 이론 수업이었다. 초등학교 수업은 단순한데 여기서는 새로운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 주신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노광현 기획처장은 "한성 커뮤니티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대학이 되겠다"고 밝혔다.

# 내 마음이 담긴 기숙사 상상빌리지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상상빌리지 기숙사 기부금으로 표현해 주세요

## 상상빌리지는 다음과 같은 용도로 사용됩니다

지하 2층, 지상 7층으로 연면적 2,048평 규모입니다.  
2인실 162개, 1인실 3개, 세미나실 2개, 라운지 2개, 독서실(연람실), 체력단련실, 탁구장, 회의실, 행정실 등이 조성됩니다.

### | 상상빌리지 기부금 |

**기간** 2018. 5. ~ 준공식까지

**대상** 교직원, 재학생, 학부모, 동문, 개인, 기업 등

**기부방법** 홈페이지를 통하여 의자(10만원), 독서실 테이블(50만원), 휴게실 기자재(100만원) 등 기부자의 지정에 따른 비품 및 기자재 기부

### | 상상빌리지 기부자 예우 |

기부금액에 따라 지정한 기숙사내의 교육시설을 기부자 이름으로 명명

10억 이상	지정한 층을 기부자 이름으로 명명
3억 이상	휴게라운지 / 세미나실을 기부자 이름으로 명명
1억 이상	지정 호실을 기부자 이름으로 명명

5천만원 이상	체력단련실 기자재 전체 기부	1백만원 이상	휴게실 기자재 기부
3천만원 이상	탁구장 기자재 전체 기부	50만원 이상	침대 기부
1천만원 이상	세미나실 기자재 기부	20만원 이상	독서실 책상 및 의자 한 세트 기부
5백만원 이상	라운지 기자재 기부	10만원 이상	독서실 책상 혹은 의자 기부
10만원 미만	상상빌리지 외부벽돌 기부		

※ 1천만원 이상 기부한 회사 및 업체에게는 학교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동안 광고를 게재

### | 상상빌리지 기부자 세제혜택 |

**개인기부** 소득세법에 의해 근로소득금액 한도내 100% 세액공제 기부금 2,000만원 이내 세액공제율 15% 적용 (단, 기부금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 30% 적용)

**법인기부** 법인세법에 의해 사업소득금액 50% 한도내 전액 소득공제



## 상상빌리지 기부금 약정서

성명(기관명)	<input type="checkbox"/> 기업 <input type="checkbox"/> 단체 <input type="checkbox"/> 개인		
	주민(사업자)등록번호 <small>※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용됩니다. (본교 교직원은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small>		
기부인	<input type="checkbox"/> 일반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대상구분	<input type="checkbox"/> 동문	<input type="checkbox"/> 박사	<input type="checkbox"/> 석사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input type="checkbox"/> 학사	<input type="checkbox"/> 과정
약정인	입학년도:	대학(원):	
	학부(과):	전공:	
연락처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input type="checkbox"/> 총장	<input type="checkbox"/> 교수
		<input type="checkbox"/> 직원	소속:
주소	주소 <small>※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을 위해 사용됩니다. (본교 교직원은 기입하지 않아도 됩니다)</small>		전화번호
	E-mail		핸드폰
우편물/영수증	<input type="checkbox"/> 영수증 발급 희망 <input type="checkbox"/> 학교에서 발행하는 자료 수령희망		
기부(약정)액	금 원 정(₩ )		
기부물품			
한성사랑 지정	<input type="checkbox"/> 1. 10억원 이상: 지정한 층을 기부자 이름으로 명명 <input type="checkbox"/> 2. 3억원 이상: 휴게라운지/세미나실을 기부자 이름으로 명명 <input type="checkbox"/> 3. 1억원 이상: 지정 호실을 기부자 이름으로 명명 <input type="checkbox"/> 4. 5천만원 이상: 체력단련실 기자재 전체 기부 <input type="checkbox"/> 5. 3천만원 이상: 탁구장 기자재 전체 기부 <input type="checkbox"/> 6. 1천만원 이상: 세미나실 기자재 기부 <input type="checkbox"/> 7. 5백만원 이상: 라운지 기자재 기부 <input type="checkbox"/> 8. 1백만원 이상: 휴게실 기자재 기부 <input type="checkbox"/> 9. 50만원 이상: 침대 기부 <input type="checkbox"/> 10. 20만원 이상: 독서실 책상 및 의자 한세트 기부 <input type="checkbox"/> 11. 10만원 이상: 독서실 책상 혹은 의자 기부 <input type="checkbox"/> 12. 10만원 미만: 상상빌리지 외부벽돌 기부		
기간	<input type="checkbox"/> 일시납부	년 월 일까지 납부	
	<input type="checkbox"/> 분할납부	년 월부터 년 월까지 (회)분납	월납부액 원
납부방법	<input type="checkbox"/> 무통장 입금	기업은행: 689-000276-01-946	예금주: 한성대학교
	<input type="checkbox"/> 급여공제	<small>※ 본교 교직원만 해당됨.</small>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입학홍보처 대외홍보팀 (우촌관 6층, 603호, TEL: 02-760-4209, FAX: 02-760-4207)	
예우동의	<input type="checkbox"/> 예우선물, 카드, 책자 수신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수신 <input type="checkbox"/> SMS 수신 <input type="checkbox"/> 기부자 명단 게재		

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보호되며 기부금영수증발급, 기부자예우를 위한 용도 이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위 약정서 상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며, 기부금을 약정합니다.

년 월 일

기부(약정)인: (날인/서명)

# 2019학년도 한성대학교 수시 모집요강

## 1. 전형 요약 및 주요 사항(변경사항)

### 2019학년도 수시 전형 요약 및 모집인원

구분	정원내/외	전형명	모집인원(명)		(B)-(A)	비고		
			2018 (A)	2019 (B)				
수시	정원내	교과성적 우수자	적성우수자	363	382	+19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모집인원 확대	
			기본교과	381	366	-15	IT공과대학 모집인원 축소	
		실기우수자		79	103	+24	ICT디자인학부 수시모집인원 확대	
		특기자	무용	6	6			
			뷰티디자인 매니지먼트	4	4			
		학생부 종합	한성인재	180	160	-20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모집인원 축소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른기회 사회배려대상자	45	45			
			상상SW특기자		15	+15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신설	
		정원외	농어촌학생		56	57	+1	
			특성화고교 졸업자		21	21		
	특성화고교졸재직자		80	80				
	재외국민과 외국인		28	29	+1	재외국민및외국인모집요강 별도 공지(7월중)		
	수시 모집인원(비율)			1,243 (75%)	1,268 (76%)		2019학년도: 1,650명 기준 (정원내1,462명/정원외188명)	

### 2018학년도 대비 2019학년도 수시 주요 변경사항

모집시기	변경사항		2018학년도	2019학년도
수시	학생부종합	SW 특기자 전형 신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T공대(주):10명/ IT공대(야): 5명</li> <li>- 다단계 평가</li> </ul> </li> <li>• 1단계 : 서류평가(학생부+자기소개서)</li> <li>• 2단계 : 1단계 60%+면접 40%</li> </ul>

## 2019학년도 수시 전형유형별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모집 시기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계열 / 단위	최저학력기준	반영비율(100%)	반영 교과		
수시	학생부 종합	적성우수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없음	학생부(기본교과) 60% + 전공적성(40%)	국/영/수/사		
			IT공과대학			국/영/수/과		
		교과성적 우수자	기본교과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주	국어, 수학나형, 영어, 사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6등급 이내	학생부(기본교과) 100%	국/영/수/사
				야	국어, 수학나형, 영어, 사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			
			IT공과대학	주	과탐 응시자로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7등급 이내	학생부(기본교과) 100%	국/영/수/과	
				야	과탐 응시자로 국어, 수학 가/나형, 영어, 과탐(1과목) 중 2개영역 등급 합이 8등급 이내			
		특기자	미용특기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없음	학생부(기본교과) 100%	국/영/수/사	
		실기 위주	한성인재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없음	학생부 40% + 서류평가 60%	국/영/수/사
				IT공과대학				국/영/수/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고른기회 사회배려대상자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없음	학생부 40% + 서류평가 60%	국/영/수/사
	IT공과대학						국/영/수/과	
	상상SW특기자	IT공과대학		없음	1단계 : 학생부 + 자기소개서(5배수) 2단계 : 1단계 60% + 면접 40%			
	농어촌	IT공과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없음	학생부 40% + 서류평가 60%	국/영/수/사	
IT공과대학						국/영/수/과		
특성화고교	IT공과대학	사회과학부, 글로벌패션산업학부,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 IT공과대학		없음	학생부 40% + 서류평가 60%	전교과		
특성화고교졸재직자	IT공과대학	사회과학부(야),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학과(야), IT공대(야)		없음	학생부40% + 서류평가 60%	전교과		
실기 위주	실기우수자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없음	학생부(기본교과) 30% + 실기고사 70%	국/영/수/사		
		ICT디자인학부(주/야)		없음	학생부(기본교과) 40% + 실기고사 60%	국/영/수/사		
	농어촌학생	ICT디자인학부(주)		없음	학생부(기본교과) 40% + 실기고사 60%	국/영/수/사		
	특성화고교 졸업자	ICT디자인학부(주)		없음	학생부(전교과) 40% + 실기고사 60%	전교과		
특기자	무용 특기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없음	학생부(기본교과) 20% + 실기고사 80%	국/영/수/사		

## 2. 모집단위 및 전형별 모집인원

| 2019학년도 수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

단과 대학	학(부)과	전공	수시 인원(정원 내)								계	선발 인원(정원 외)					계	
			학생부 교과			학생부종합			실기위주			학생부종합			실기위주			
			적성 우수자	교과 성적 우수자	특기자	학생부 종합	국가보훈 대상자 및 고른기회 사회배려 대상자	상상 SW 특기자	실기 우수자	특기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특성화 고교졸 재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크리에이티브인문 예술 대학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주)		56	25		25	12					118	[주간] 10명					
	크리에이티브인문학부(야)		28	15		25						68	[야간] 4명					
	예술학부(주)	동양화																
		서양화																
		한국무용							4	2	6							
현대무용										3	2	5						
	발레							4	2	6								
미래 융합 사회 과학 대학	사회과학부(주)		43	47		25	15				130	[주간] 10명	[주간] 5명	[야간] 40명				
	사회과학부(야)		44	44		25					113	[야간] 6명	[야간] 2명					
디자인 대학	글로벌패션산업학부(주)		19	22		5	3				49	[주간] 3명	[주간] 2명					
	글로벌패션산업학부(야)		20	24		5					49	[야간] 1명	[야간] 1명					
	ICT 디자인학부(주)								72		72				[주간] 4명	[주간] 2명		
	ICT 디자인 학부(야)	게임일러 스트레이션							20	20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주)			8	2						10		[주간] 1명	[야간] 20명				
	뷰티디자인메니지먼트학과(야)			8	2						10		[야간] 1명					
IT 공과 대학	컴퓨터공학부(주)		116	116		25	15	10			282							
	기계전자공학부(주)																	
	IT융합공학부(주)																	
	스마트경영공학부(주)																	
	컴퓨터공학부(야)		56	57		25	5				143							
	기계전자공학부(야)																	
	IT융합공학부(야)																	
	스마트경영공학부(야)																	
총 계			382	366	4	160	45	15	103	6	1,081	53명	19명	80명	4명	2명	158명	

※ 미충원 이월 인원 포함(2명)  
※ 수시모집 미충원 인원은 정시로 이월 모집

# 혁신의 트랙을 달릴 인재를 기다립니다

## 한성대학교 전공트랙제

인재를 향해 나아가는  
한성의 상상력에는 끝이 없습니다.  
학과 상관 없이 전공을 선택하는 전공트랙제로  
**창의적 전문인**  
**포용적 사회인**  
**열린 세계인**을 키워온 한성대학교.  
그 혁신의 트랙을 달릴 당신을 기다립니다.

### 한성대학교 전공트랙제

전공트랙제는 미래를 선도하는 융합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한성대학교가 그 누구보다 한 발 앞서 실천하는  
인재양성 프로그램입니다.

4개 단과대학 총 45개 트랙으로 구성  
1학년 때 다양한 학문분야를 체험하고  
2학년 진급 시 적성에 맞는 2개의 복수트랙을 선택하여  
학생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찾는 인재맞춤형제도입니다.

